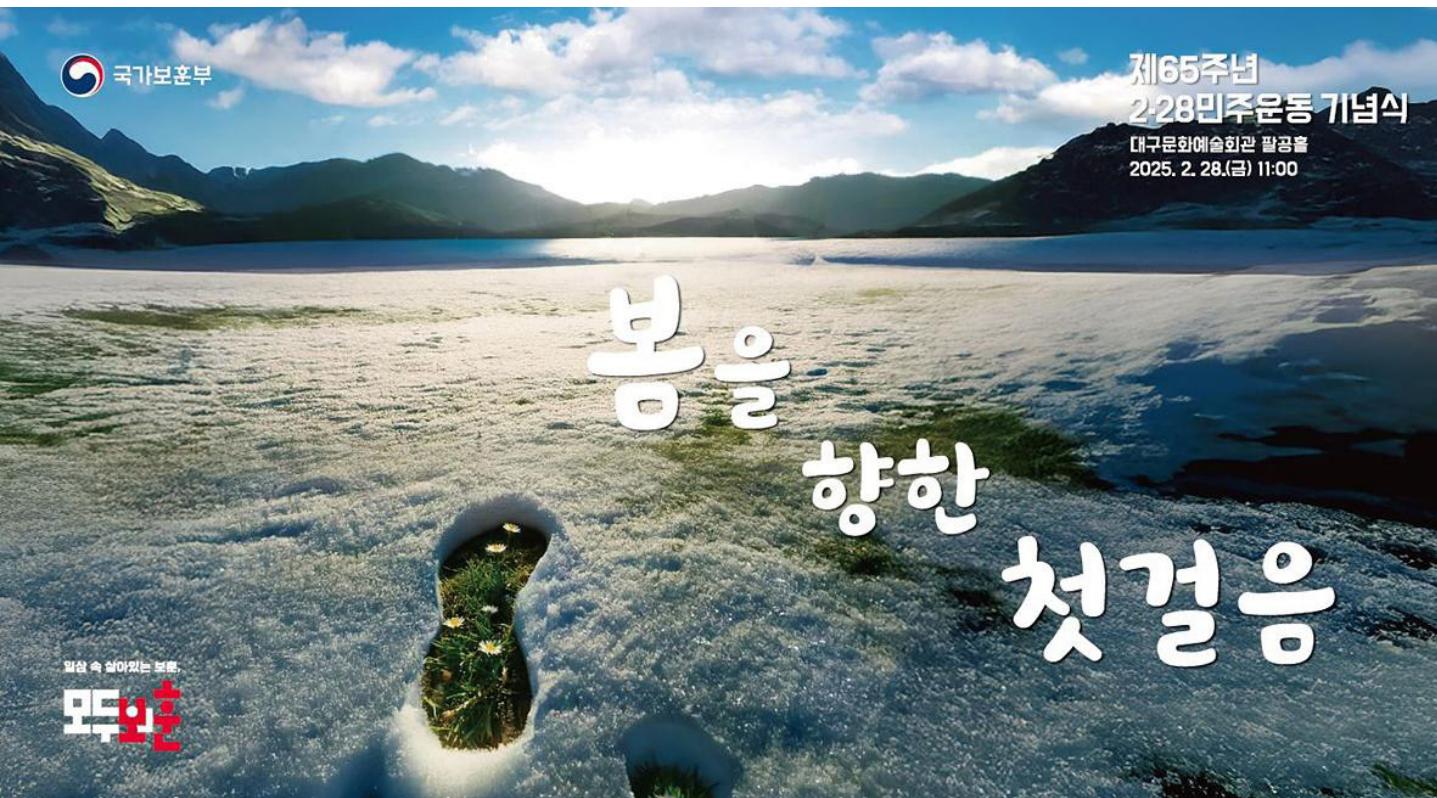




Vol.97  
2025 SPRING  
제25권 1호 통권 97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2·28민주운동은  
민주주의 되살린 역사적 전환점”

곽대훈 제16대 2·28기념사업회장 취임

“65년 전 교정을 박차고 나았듯,  
이제 명덕네거리 빛이나 국민 속으로!”

포도밭의 기적 일구는 대구수성알파시티

사단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법인 |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 표지사진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지난 2월 28일 대구시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국가 보훈부는 주제선정 취지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에 대한 침해에 저항하고 자 용기를 냈던 학생들의 결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봄, 4·19혁명을 향한 자랑스러운 여정의 시작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 CONTENTS

2025 SPRING vol.97



## 04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사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2·28민주운동은 민주주의 되살린 역사적 전환점”

## 06 특집. 제65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행사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2·28민주운동은 대구 자유정신이 바탕”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대구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제65주년 기념 특별기획 사진전 ‘대구의 혼’ 개최

## 12 2·28 주요뉴스

- 제16대 2·28기념사업회장에  
곽대훈 회장 취임
- 곽대훈 제16대 2·28기념사업회장 취임사  
“65년 전 교정을 박차고 나왔듯,  
이제 명덕네거리를 벗어나 국민 속으로!”
- 박영석 14·15대  
2·28기념사업회 회장 이임사  
“2·2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28자유광장’ 탄생이 큰 보람”
- 유망 청소년 선수들의 등용문인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개최
- 제12기 2·28대학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첫 강의



## 2·28회원님들이 2·28의 큰 힘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며,  
대구·경북의 자랑스러운 정신인 2·28을 널리 알리고 이어가는 일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2·28과 함께 하는 회원님들의 뜻과 정성은 2·28정신 선양과 계승에 큰 힘이 됩니다.

- **연회비** 정회원 30,000원 / 후원회원 1,000,000원 이상입니다.
  - **평생회비** 원로, 유공자 100,000원 이상 / 60세 이상 200,000원 이상 / 60세 미만 300,000원 이상입니다.
  - **계좌번호** 농협 301-0248-9904-81 / 대구은행 505-10-139462-2
  - **예금주**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 본 법인에 납부하는 기부금은 관련법에 의거 기부금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6) 2·28민주운동 결의문 발표대회  
대구고 이재익군 대구시장상 수상
- 7) 2·28 횃불지 영인본 3권 발간
- 8) 2·28 주역과 함께하는 역사체험 프로그램 인기
- 9) 정시식 2·28원로자문위원  
‘고목이 시를 짓다’ 시집발간
- 10) 2·28 사업회 박영석 전 회장 ‘36.5°C로 말하기’ 신간 출간
- 11) 백재호 기획홍보국장  
‘대구역사 총서’ 필진으로 참여

## 30 천년의 잠에서 깨어나는 新실크로드 2 ‘이슬람의 세계인 신비의 땅 중앙아시아’

## 42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구경제 원로 취재일기

## 50 디지털 시대의 정치집회 문화 분석

## 58 시인 구상의 친구인 포대령과 깡패화가 이야기

## 64 포도밭의 기적 일구는 대구수성알파시티

## 72 남평문씨 인흥세거지의 ‘三相미학’

## “ 2·28민주운동은 민주주의 되살린 역사적 전환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8민주운동 유공자와 가족 여러분,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그리고 자랑스러운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65년 전 대한민국의 봄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된 이곳 대구에서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의 고등학생들은 독재 정권의 부당한 통제와 일요 등교 지시에 맞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민주주의를 살리자’라는 외침은 대구시민들의 지지 속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4.19혁명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봄을 가져왔습니다.

그날의 학생들은 단순히 학업에 머물지 않고 올바른 가치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지성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8민주운동은 단순한 학생 운동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린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 위대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정의와 자유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정부는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모든 학생들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꿈과 희망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주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 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임을 기억하며 이를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해 보훈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2조에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임을 기억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6조와 제30조에는 모든 국민은 나라 사랑정신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민간의 참여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보훈 기본법을 토대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비전으로 수립하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나라 사랑정신을 이어가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5년 전 대구 학생들이 보여준 용기와 연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나아가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차례입니다.

끝으로 2·28민주운동 유공자와 대구시민 경북도민,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민과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나라 사랑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2월 28일 대구시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에 앞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맨앞)과 곽대훈 2·28기념사업회 회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둘째줄 오른쪽부터) 등이 2·28민주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있다.

##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

# “ 2·28민주운동은 대구 자유정신이 바탕 ”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이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 대구시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곽대훈 2·28기념사업회 회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28유공자, 유족,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을 향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2·28민주운동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기념공연, 기념사, 2·28찬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공연에는 2·28민주운동 주역(경북고, 경북대사대부고, 경북여고, 대구고, 대구공고, 대구농림고(現대구농업마이스터고), 대구상업고(現대구상원고), 대구여고)들의 후배 학생들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학교별 2·28 민주운동 참여 과정을 소개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의 주제인 ‘봄을 향한 첫걸음’ 영상조명을 배경으로 ‘2·28찬가’를 부르는 모습.

하고, 65년 전 대구 학생들의 민주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28찬가’는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전체 참석자들과 함께 제창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65년 전 불의에 저항하고자 용기를 냈던 학생들의 결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봄이었다”면서 “이번 기념식이 민주주의의 여정을 시작한 힘찬 첫걸음이었던 2·28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어받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28민주운동은 대구 자유정신이 바탕이 되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됐다”며 “오늘 행사가 통합의 시대정신으로 좌우 이념을 넘어 지금의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대훈 2·28기념사업회장은 “2·28민주운동은 지금 살아 숨 쉬는 ‘대구정신’이며, 모든 것을 던져 불의에 항거했던 2·28정신은 오늘날 세계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면서 “이번 기념식을 통해 암울하고 참담했던 상황에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친 정의로운 2·28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28민주운동 기념탑 참배에 앞서 참석내빈들이 의전행사를 하고 있다.



곽대훈 2·28기념사업회장이 2·28민주운동 제65주년 기념식장에서 KBS 방송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 대구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대구시향의 공연모습

2·28민주운동 제65주년을 기념하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특별연주회 '역사적 순간들'이 지난 2월 28일 오후 7시 30분 대구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개최됐다. 대구시향의 2·28민주운동 기념공연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 객석에는 2·28유공자와 회원, 대구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2·28민주운동 65주년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연주회는 2부로 구성됐다. 1부 공연에서는 작곡가 시벨리우스의 '역사적 장면 모음곡 제2번' 중 '서곡(사냥)'을 시작으로,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대구시향이 바이올리ニ스트 김응수와 협연했다.

2부 공연에서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제1번과 제2번이 선보였다. 가장 대중적인 오페라 중의 하나인 비제의 '카르멘'은 '사랑도, 삶도, 죽음도 나는 스스로 선택한다'고 외친 짐시 여인 카르멘과 군인 돈 호세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곽대훈 2·28기념사업회 회장(가운데)과 백진현 대구시향 상임지휘자, 백재호 2·28기념사업회 기획홍보국장이 공연에 앞서 환담하는 모습.

곽대훈 2·28기념사업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대한 대구 정신인 2·28민주운동의 의미를 이번 특별연주회를 통해 대구 시민들이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2·28민주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백진현 대구시향 상임지휘자는 "2·28민주운동기념일에 2·28유공자를 비롯한 대구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특별연주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공연 전반부는 음악으로 민족 자긍심을 고취한 시벨리우스의 작품을 감상하고, 후반부는 '자유'를 갈망하는 '카르멘'을 통해 인간 본연의 열정과 에너지를 음악으로 전한다"고 설명했다.

백지휘자는 이와 함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할 때 완성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 공연을 통해서 대구 시민정신과 2·28민주운동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구시민주간 마지막 날 시민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음악으로 함께 즐기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65주년 기념 특별기획 사진전 “대구의 혼” 개최

2·28민주운동 제65주년과 대구시민주간을 기념하는 ‘2·28민주운동 기념 특별기획 사진전’ 개막식이 지난 2월 18일 오후 2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제10전시실에서 2·28기념사업회 광대훈 회장과 이양강 원로자문회의 의장, 임직원, 유공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전의 메인전시회는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대구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대구문화예술회관 9, 10전시실에서 열렸다. 메인전시와 더불어 대구 수성·남부 도서관,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대구어린이세상, 대덕문화전당 등 7개 기관에서도 이 기간 공동으로 특별기획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2·28 기념사업회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2월 18일부터 이 사진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에는 지난 2023년 5월 18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사진 5점과 새롭게 발굴된 2·28 당시 사진을 비롯해 문헌자료 등 70여 점이 전시되었다.

곽대훈 2·28기념사업회 회장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자랑스러운 대구의 정신 문화유산인 2·28민주운동 65주년을 기념하여 특별 사진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1960년대 당시 역경에 처했던 대구의 생생한 역사의 흔적을 되새기고, 독재정치에 항거하여 빛나는 민주주의를 그려낸 자유정신을 230만 대구시민들과 새롭게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광 회장은 또 “특별사진전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열리고 경기도에서도 전시되는 만큼, 2·28민주운동의 빛나는 정신을 전국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기념 특별기획 사진전’에서 한 시민이 전시된 사진을 관람하는 모습.



2·28기념사업회 광대훈 회장과 원로자문회의 이양강 의장, 최용호 주역, 정시식 주역 등이 지난 2월 18일 대구문화예술회관 10전시실에서 열린 ‘2·28민주운동 기념 특별기획 사진전’ 개막식에서 전시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제65주년 2·28민주운동 기념 특별기획 사진전’ 개막식에서 내빈들이 테이프컷팅을 하는 모습.

# 2·28 MAIN NEWS

- 01 제16대 2·28기념사업회장에 곽대훈 회장 취임
- 02 곽대훈 제16대 2·28기념사업회장 취임사  
“65년 전 교정을 박차고 나왔듯, 이제 명덕네거리를 벗어나 국민 속으로!”
- 03 박영석 14·15대 2·28기념사업회 회장 이임사  
“2·2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28자유광장」 탄생이 큰 보람”
- 04 유망 청소년 선수들의 등용문인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개최
- 05 제12기 2·28대학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첫 강의
- 06 2·28민주운동 결의문 발표대회 대구고 이재익군 대구시장상 수상
- 07 2·28 횃불지 영인본 3권 발간
- 08 2·28 주역과 함께하는 역사체험 프로그램 인기
- 09 정시식 2·28원로자문위원 ‘고목이 시를 짓다’ 시집발간
- 10 2·28 사업회 박영석 전 회장 '36.5℃로 말하기' 신간 출간
- 11 백재호 기획홍보국장 「대구역사 총서」 필진으로 참여



## 제16대 2·28기념사업회장에 곽대훈 회장 취임



2·28기념사업회 2025년 정기총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28 민주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월 13일 정기총회를 열어 제16대 회장에 곽대훈 전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곽 회장은 대구 달서구 3선 구청장과 제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달서구갑)을 역임했으며, 제26대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을 지냈다. 국회의원 당시에는 당 지방자치위원장, 예산결산특위 위원을 맡았다. 고려대학교 법대(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겨주신 2·28 원로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선배님들의 피땀이 서려있는 2·28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 방경곤 전 2·28기념사업회 부회장과 김종찬 전 대구MBC 이사가 제15대 감사로 재임됐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2·28기념사업회 정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2·28기념사업회는 총회에 앞서 지난 1월 22일 2025년 제1차 원로자문회의(의장 권국현)와 이사회

를 열고 제16대 회장 후보에 곽 전 국회의원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이날 원로자문회의에서는 2025년 5대 의장에 이양강(대구여고 6회) 원로를 선출했다.

곽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겨주신 2·28 원로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선배님들의 피땀이 서려있는 2·28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기를 마친 박영석 14·15대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회장으로서의 크고 작은 소임들을 잘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서 많은 도움을 주신 2·28 원로님과 이사님, 회장단 여러분, 회원님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 “65년 전 교정을 박차고 나왔듯, 이제 명덕네거리를 벗어나 국민 속으로!”

오늘 저에게 제16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2·28원로님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의 피땀이 서려있는 2·28정신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혼신하신 역대 회장님과 원로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로써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민주운동이 65주년을 맞았습니다. 2·28은 훌륭한 역사가 아니라 지금 살아 숨 쉬는 ‘대구 정신’입니다. 모든 것을 던져 불의에 항거했던 2·28정신은 오늘날 세계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었습니다. 65년 전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학생들이 만든 소중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2·28민주운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아직 낮은 것이 현실이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가야 할 길 또한 멀고도 험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2·28정신을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대구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새로이 하고, 2·28정신의 시대적 재해석과 재조명을 통해 국가발전의 핵심에너지로 승화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2·28정신의 핵심인 ‘자유, 정의, 민주’의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제대로 뿌리내려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굳건히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가 2·28이다!’라는 기치 아래 시민들의 일상의 삶 속에 2·28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과제 발굴과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2·28정신의 함양을 통한 올바른 국가관 배양과 자유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28민주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애국 혼의 계승 발전은 물론, 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정비 및 보완을 위해 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원로들께서 암울하고 참담했던 상황에 2·28을 통해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듯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극도로 혼란한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2·28정신으로 뜨겁게 하나 되어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대훈 제16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이 지난 2월 1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 “2·28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28자유광장」탄생이 큰 보람”

민주와 정의, 청년과 미래로 상징되는 2·28민주운동 정신은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언제나 희망과 힘을 불러오는 강력한 에너지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관차처럼 지평선을 향해 숨 가쁘게 질주하며 힘차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2·28과 함께 한 그동안의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시간들을 뒤로 하며 잠시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킵니다.

2022년 2월 우동기 전임 회장님으로부터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을 이어받아 제14대와 15대 회장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임인사를 올립니다. 임기 동안 회장으로서의 크고 작은 소임들을 잘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서 많은 도움을 주신 2·28 원로님과 이사님, 회장단 여러분, 회원님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의 시간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유공자님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문제를 비롯해 2·28 기념사업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장치 마련, 미래세대에게 2·28을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해 초중고 교과서에 2·28 민주운동 수록 등 여러 현안들도 있습니다만 보람도 참으로 컸습니다.

2023년 5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4.19 혁명기록물과 함



께 2·28 시위사진 등 2·2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올랐습니다. 물론 아직도 귀중한 많은 자료들을 추가로 등재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만 대구에서는 양대 시민정신인 국채보상운동 기록물과 함께 2·28 기록물도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대구두류공원에 있는 2·28민주운동기념탑 옆에 2만평 규모의 「2·28 자유광장」이 대구에서 첫 광장으로 탄생했습니다. 2·28광장이 탄생하게 된 것은 지난해 3월 8일 대구시장실에서 있은 홍준표 시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2·28 광장 신설'을 건의하자 시장이 이를 바로 수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즉시 설계, 시공 등 공사를 추진해 2024 대구치맥축제가 개막된 7월 3일 오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2·28 주역 및 원로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2·28 자유광장 개막식을 거행, 2·28 민주운동의 의의를 크게 드높이게 됐습니다.

회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역시 2·28민주운동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2·28 자료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고 주역 한분 한분의 증언도 최대한 들어 기록, 보관, 정리하는 일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2·28 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2·28TV」를 개국,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햇불지와 2·28뉴스레터와 함께 SNS 홍보를 대폭 확충하고 MBC, TBC를 통해 연중 라디오 캠페인도 실시했습니다. 초중고생 등 미래세대에게 2·28정신과 의의를 확산하기 위해 2·28전국학생문화상 승격과 함께 대구도심에 있는 2·28기념공원 무대에서 2·28기념 전국청소년댄스가요제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초중고 학생간부 및 교사연수, 시민과 함께 하는 2·28기념음악회, 2·28현정공연 등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2·28민주운동의 다양한 자료와 문헌들을 발굴, 확보, 정리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면서 아카이빙실을 개설했습니다. 특히, 1960년 2월 일어난 대구 2·28민주운동을 뉴욕 타임즈 등 세계 주요언론들이 보도한 사실을 찾아내고 신문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2·28대학과 2·28청년아카데미 운영을 활성화하고 2·28도서관도 자료 및 도서 확충을 통해 보다 효율화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현창사업과 2·28 정신확산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더 크게 확장해나가지 못한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2·28가족들의 열정과 봉사로 채우고 메워 나가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국가기념일 2·28 민주운동은 이제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28민주운동의 역사와 2·28정신은 이제 국민의 가슴속에 자리하고 미래세대에게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8 민주운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오늘입니다. 과거의 2·28, 기념만하는 2·28에 머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에 숨 쉬고 호흡해야 합니다. 나아가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65년전 대구의 10대 청년들은 사회적 모순과 부정, 비리를 결코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것을 알면서도 용기 있게 과감히 일어서 저항하고 항거했습니다. 민주와 정의, 청년과 미래로 상징되는 2·28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면서 오늘의 시대정신으로도 끊임없이 호흡하고 발현되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늘 2·28과 함께 할 것입니다. 곽대훈 16대 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다시 한 번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 유망 청소년 선수들의 등용문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개최

2·2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제4회 전국 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가 강원도 철원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지난 2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 간 겨루기와 품새 종목별로 전국의 청소년 태권도 선수 1000여 명이 출전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한국중·고등학교태권도연맹(회장 이경배)과 2·28 기념사업회가 공동주최한 이 대회는 올해로 4회째를 거치면서 전국의 유망 태권도 선수를 배출하는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이 대회는 지난 2022년 대구에서 창설됐으며, 1회와 2회 대구실내체육관, 3회는 지난해 전남 구례에서 열렸다.

곽대훈 2·28 기념사업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민주운동의 자유, 민주, 정의 정신을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대구에서 창설된 대회가 호남, 강원에서도 열리게 됨으로써 전국의 참가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2·28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05

## 제12기 2·28대학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첫 강의

2·28평생교육원(원장 최교만)은 지난 3월 12일 제12기 2·28대학을 개강했다. 수업은 매주 수요일 2·28기념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열린다. 첫 수업은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민주평화통일과 국민통합'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19일에는 김권구 계명대교수가 '박물관에서 만나는 세계의 건축', 26일에는 이동일 풍수학 박사가 '대구의 세계적인 보물, 사유원'을 주제로 수업을 했다.

4월에는 김병두 인문학 스타강사와 윤순갑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최봉태 삼일 대표변호사, 최재목 영남대학교 교수,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수업을 맡는다.

5월에는 방경곤 전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승옥 트로트 가수, 김도상 전 대구어린이회관 관장, 그리고 6월에는 임수무 계명대 명예교수가 강단에 선다. 수강생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했다. (문의 : 053-423-0228, 2·28평생교육원)



3선의 경북도지사를 지난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오른쪽에서 5번째)이 지난 3월 12일 2·28대학 제12기 프로그램의 개강식에서 특강을 한 후 곽대훈 2·28사업회 회장을 비롯한 2·28 민주운동 원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매일신문 제공)

# 2·28대학 제12기

일정 매주 수요일, 10:00 ~ 12:00

장소 2·28민주운동기념회관 2층 대강의실  
대구시 중구 2·28길 9

신청기간 2025. 2. 21.(금) ~ 3. 6.(목)

- 3.12.(수) 민주평화통일과 국민통합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3.19.(수) 박물관에서 만나는 세계의 건축 김권구 계명대학교 교수
- 3.26.(수) 대구의 세계적인 보물, 사유원 이동일 풍수학 박사
- 4.2.(수) 영화 속으로 떠나는 추억여행 김병두 인문학 강사
- 4.9.(수) 정치와 민주주의 윤순갑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 4.16.(수) 대구 부활과 2·28정신 최봉태 법무법인 삼일 대표변호사
- 4.23.(수) 목적없는 소요: 터벅터벅의 풍류론 최재목 영남대학교 교수
- 4.30.(수)\* 독립과 민주주의 이종찬 광복회 회장
- 5.14.(수) 건강하고 존경받는 어르신 방경곤 전)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 5.21.(수) 노래 잘하는 법 이승옥 트로트 가수
- 5.28.(수) 대구 사랑, 대구 자랑 김도상 전)대구어린이회관 관장
- 6.4.(수) '평천하'부터 시작해봅시다 임수무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2·28  
사단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법인 |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신청·문의 : ☎ 053)423-0228

06

## 2·28민주운동 결의문 발표대회 대구고 이재익군 대구시장상 수상

대구교육누리가 주최하고 2·28기념사업회가 주관한 '다시 쓰는 2·28민주운동 결의문 발표대회'가 지난 2월 28일 2·28기념회관 2층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대구시민주간의 주요행사로 열리는 2·28민주운동 결의문 발표대회는 대구시내 학생들에게 2·28민주운동을 홍보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발표대회에는 1960년 2·28민주운동에 참가한 8개 고교 1, 2학년 학생회 임원 및 응원단 20명이 참가했다. 대구고 1학년 이재익군이 대구광역시장상을, 경북대사대부고 2학년 신준서군이 대구광역시교육감상을, 대구상원고 2학년 소승건군이 2·28기념사업회장상을 수상했다. 심사는 2·28기념사업회 최용호 원로자문위원, 백승대 부회장, 최병덕 연구원장이 맡았다.



지난 2월 28일 2·28기념사업회 대강당에서 열린 '다시 쓰는 2·28민주운동 결의문 발표대회'의 수상자와 심사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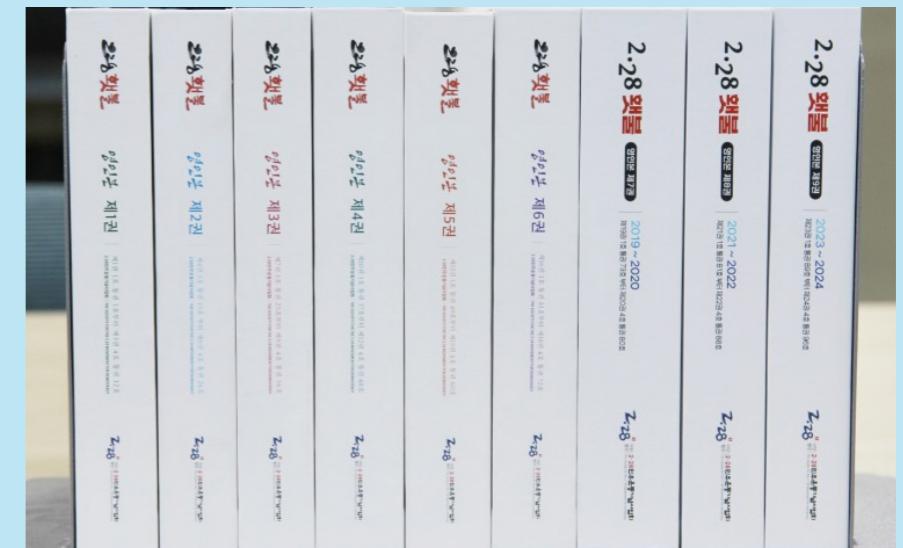
## 2·28 햇불지 영인본 3권 발간

2·28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발굴한 다양한 사진과 자료, 그리고 시론, 기고, 논문을 포함해 회원들의 활동 등을 담아 계간으로 발간해온 '햇불'지 영인본 3권(사진)을 추가로 냈다. 이번에 낸 영인본은 2019년 4월 발간한 통권 제73호부터 2024년 12월 폐낸 통권 96호까지 세 권으로 나눠 발간되었다.

2·28 기념사업회는 지난 2018년에는 2001년 2월 28일 첫 발간한 햇불 창간호를 시작으로 72호

까지를 뮤은 영인본 6권을 발간했고, 이번에 3권을 추가로 펴냈다.

박영석 전 기념사업회 회장은 "24년간 2·28 발굴 자료 및 사진, 활동상 등을 실은 햇불지가 영인본으로 모두 발간됨에 따라 2·28 관련 기록, 자료 등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08

## 2·28 주역과 함께하는 역사체험 프로그램 인기

2·28평생교육원이 대구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28민주 나들이'(2·28역사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2·28기념탑과 2·28자유광장을 견학하고 2·28민주운동 당시의 주역(여행웅, 정시식 최용호, 홍종흠)을 만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질문을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다.

지난 한해 프로그램에도 많은 학생들의 신청이 있었다. 현풍중학교, 대구칠성초등학교, 월서중학교, 대구와룡초등학교, 대구대성초등학교, 동도중

학교, 대구학산초등학교, 조일고등학교, 대구일중학교 등 9개교(18팀) 422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 결과, 97%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첫 프로그램이 선보였던 지난해 10월 22일에는 현풍중학교 학생 21명이 기념탑과 회관을 둘러보고 최용호 주역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10월 24일에는 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여행웅 주역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연말까지 이어졌다.



홍종흠 주역이 학생들에게  
2·28 민주운동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여행웅 주역이 강의를 마친 후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고 있다.

09

## '고목이 시를 짓다' 시집발간 정시식 2·28원로자문위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2·28 학생 민주운동의 주역이었던 정시식 2·28원로자문위원이 '고목이 시를 짓다'라는 제목의 시집을 냈다. 정 위원은 2023년 월간시를 통해 등단했다. 그는 1960년 2·28 당시 경북고 2학년생으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구 학생시위에 앞장섰으며, 그동안 2·28 기념사업회 이사, 원로자문회의 의장을 맡아 사업회를 전 국민적 자부심으로 키워온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첫 시집을 내면서 "나이테 해는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시인은 대구시 공직(공보관, 교통국장, 공무원교육원장, 수성구 부구청장)에서 퇴직한 이후, 카메라를 들고 고목나무를 찾아다니면서 나무가 전해주는 얘기를 들으며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팔순을 기념해 '카메라와 함께한 나무산책'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으며, 책이 소진돼 2023년에 증보판까지 냈다. 그는 경북 중·고교와 서울대 농대(임학과) 재학시절에도 원예반 클럽 리더를 할 정도로 나무에 깊은 애정을 쏟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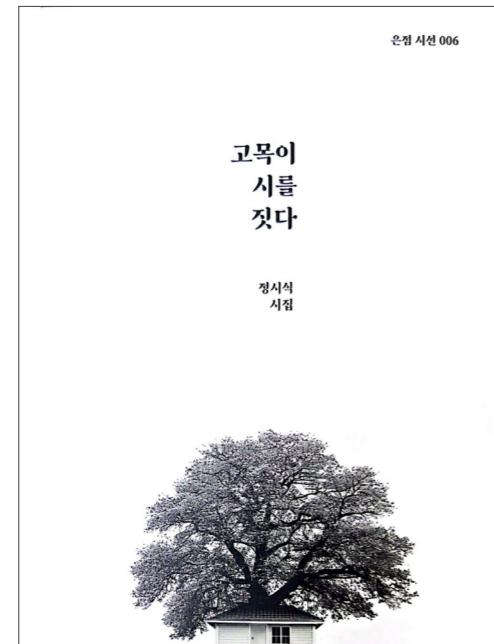


2·28원로자문위원 정시식

'고목이 시를 짓다' 시집은 대구·경북·경남·전라제주·충남북·경기강원 6부로 구성됐으며, 제1부 대구시편에

는 13개의 시가 실려 있다. 몇 백 년에서 천수 백 년을 살아온 60그루 고목나무의 향기로운 이야기와 역사를 지역별로 엮은 시집에는 시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시작 노트를 실어 독자의 이해를 돋고 있다.

이중 시인이 첫 번째로 시집에 실은 ‘동화사 오동나무’를 햇불지에 소개한다. 정 위원을 시인으로 등단시키는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 김은수 시인은 “정시식 시인의 시는 한편의 서사시(敍事詩)고 역사시(歷史詩)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의미시(意味詩)”라고 전제하며, ‘동화사 오동나무’ 시에 대해서는 “시인의 현실과 역사가 오동나무와 어우러져 평화와 화합을 이루어내는 역동성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 동화사 오동나무

동화사 조사전祖師殿 마당에는  
겨울꽃이 핀다

극달화상 창건한 유가사瑜伽寺  
중창한 심지조사心地祖師  
겨울에 꽃핀 오동나무 보고  
동화사桐華寺로 명했다

진표스님의 불골간자佛骨簡子  
수행도량 팔공총림에 봉안했다

임란 때 사명대사  
봉황루에 영남치영아문 편액 걸고  
승병 지휘한 호국사찰  
1992년 통일약사여래대불 세워  
남북통일 세계 평화 염원하며  
인류 행복 비는 오동나무  
동화冬花 피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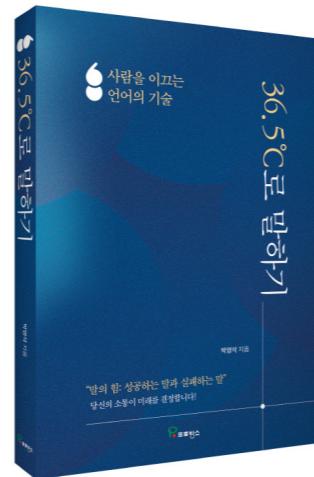


## 2·28 사업회 박영석 전 회장 '36.5°C로 말하기' 신간 출간

박영석 전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이 최근 '36.5°C로 말하기'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오랜 시간 방송기자와 앵커, 그리고 교수로 재직하면서 말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낀 그의 경험담을 담은 책이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된 책에는 말하기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들, 말하기의 원칙과 비결 등으로 나눠 그 속에 박 전 회장의 현장 경험과 풍부한 사례를 담았다.

박 전회장은 이 책에서 “우리는 주변과 매일 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저마다 자신의 말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간다. 이는 마치 전등 없이 어두운 밤길을 걷거나, 돌아오는 길도 모르면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만큼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어둡고 모르는 길을 가는 사람은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각자 매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저마다 자신의 말이 어떤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이 또한 말의 중요성이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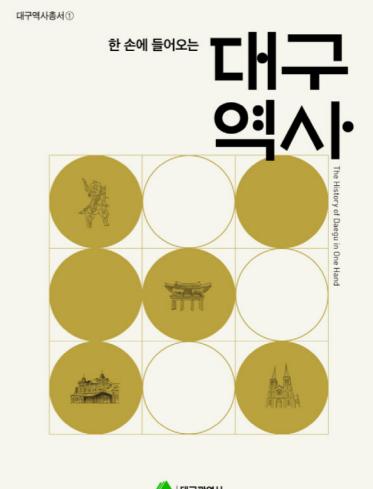


박 전회장은 “그럼에도 좋은 말이든 후회스러운 말이든, 우리는 누구도 하루하루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가족, 친구, 동료들 간에 일상에서 주고받는 이런저런 말들은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평범한 말들이다. 그러나 일상에서도 상대방이나 주변과 크고 작은 문제나 갈등, 합의나 해결해야 할 일들이 생기면 말도 달라진다”고 했다. 박 전 회장(정치학 박사)은 1959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 대구MBC에서 방송기자와 앵커로 활동했다. 대구MBC 설립 이래 기자 출신 최초로 사장직에 올랐다. 이후 대구문화재단 대표,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장,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제36회 한국방송대상(한국방송협회)과 제163회 이달의 기자상(한국기자협회), 대구시문화상을 수상했다. 저서는 ‘선거와 TV토론’(커뮤니케이션북스), ‘TV토론 시대’(해드림출판사)가 있다.

## 백재호 기획홍보국장 '대구역사 총서' 필진으로 참여

2·28기념사업회 백재호 기획홍보국장이 '대구역사총서' 제1권 필진으로 참여했다. '한 손에 들어오는 대구 역사'를 타이틀로 한 총서 제1권에서 백 국장은 '2·28민주운동과 대구 지역 학생 운동' 부분을 집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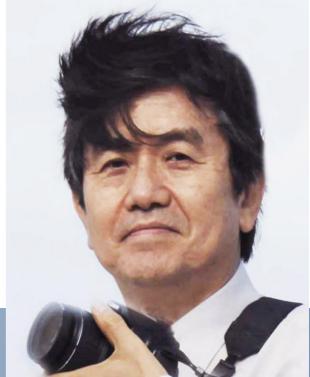
'대구역사총서'는 대구시가 지난해 연말 처음 발간했으며, 대구 역사 전반을 총정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1권에서는 대구의 역사를 책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정리했다. 대구역사를 선사시대, 고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근대, 현대로 구분하고, 각 시대의 중요한 사건·정치·사회 등 32개 주제를 선정해 시민들이 읽기 쉽도록 설명했다.



# 이슬람의 세계인 신비의 땅 중앙아시아



박순국 \_ 실크로드포럼 지도교수·전 매일신문 도쿄특파원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즈베키스탄 히바시의 전경.  
흙벽돌로 지은 실크로드 유적들과 그 너머 광활한 사막의 지평선도 보인다.



실크로드 탐사를 3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중국 시안(西安)에서 둔황(敦煌), 투르판, 카슈가르까지 갔다가 우루무치를 경유하여 돌아왔다. 두 번째 계획으로 이제는 중국 국경 그 너머 서쪽 지방,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밟아 보는 것이다. 인천공항에서 시작한 이번 여행은 하늘길로 중국을 가로질렀다. 옛날 실크로드 상인들은 몇 달이나 고생하며 중국대륙을 횡단했다는데 지난 1차 여행 때는 육로로 열흘 이상이 걸렸었다.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빨아래 스쳐 지나가는 중국 땅을 내려다보며 약 7시간30분만에 목적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했다.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중국을 건너뛰어 이제부터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다. 그동안 자세히 모르고 지내온 이슬람의 세계로 성큼 들어온 것이다. 가는 곳마다 이상하고 신비스러운 나라다.

“인생은 멋있다. 그것은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실크로드 탐험가가 한 말이다. 그곳은 가도 가도 낯선 풍경이 계속되는 이상한 나라. 사막과 초원, 오아시스가 있는 문명의 교차로 실크로드이다. 중국을 지나 또 서쪽으로 가는 이유는 그곳이 역사의 흐름 속에 민족이동과 국가의 흥망이 유달리 잣았기 때문이다. 종교의 전파와 문물교류도 빈번 했으며 그 길을 개척한 선인들의 불굴의 의지도 찾아봐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이 이번에 찾아갈 중앙아시아 중의 3개국. 각 나라 이름 뒤에 똑같이 붙은 ‘스탄’이라는 말은 지역, 장소 즉 ‘~의 땅’ 정도의 의미이다. 키르기스탄은 오염되지 않은 산악국가, 그래서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린다. 그 서쪽에는 거대한 코발트 빛 이슬람사원과 목화밭으로 유명한 우즈베키스탄이 있다. 북쪽의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세계에서 9번째로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오랜 문명의 교류가 남겨놓은 수많은 역사유적이 산재해 있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도 많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도시 부하라와 히바의 성채에는 천년의 역사 터전 위에 아직도 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각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은 환상적인 조명으로 장식된 야시장을 둘러본다. 이들은 옛 실크로드 상인들처럼 역사도시의 낭만을 느끼며 밤 깊어가는 줄을 모른다.

청색의 도시 사마르칸트는 중앙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문화유적이 많다. 조우관을 쓴 신라사신의 벽화 앞에서 전해지는 가슴 두근거림은 고구려유민 고선지 장군의 전투지 탈라스 언덕 위에 섰을 때의 감회와 비슷하다.

키르기스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여행의 수확이었다. 만년설이 은빛으로 빛나는 휴



정복자 아미르 티무르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타슈켄트사 티무르 광장. 이곳은 우즈베키스탄 민족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양지도 그렇지만 신비의 호수 이식쿨의 물빛은 환상적이었다. 불경을 찾아 인도로 가던 현장법사도 이 호숫가에서 잠시 여장을 풀고 비슷한 감동을 느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중앙박물관에서 본 황금인간은 시간의 긴 간격을 훌쩍 넘어 고대 스키타이 전사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다.

## 정복군주 티무르 우즈베키스탄의 영웅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들의 휴식과 교역을 위해 오아시스 도시들이 조성되어 있었다. 그것을 차지하려는 쟁탈전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다. 알렉산더 대왕, 칭기스칸, 티무르 등 제국을 호령하는 인물들과 군대도 실크로드를 통해 오고갔다. 13세기 초 칭기스칸은 5년간에 걸쳐 중앙아시아 원정에 나서 일대를 철저히 파괴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의 피해는 극심했다. 파괴가 있으면 건설이 따르는 것도 변증법적 질서. 몽골계 후손으로 태어난 티무르는 부근 국가를 차례로 정복, 대제국을 구축했다.

몰락한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부족 간의 항쟁과 약탈에 참가해 세력을 키우며 두각을 나타냈다. 칭기즈칸의 자손을 명목상 최고지위인 칸으로 옹립하여 꼭두각시로 만들고 자신은 아미르 칭호를 달아 실질적으로 최고 권력을 누렸다. 동부 페르시아의 모든 지역을 손에 넣고 이어서 지중해 연안까지 영토를 넓혔다. 인더스 강을 건너 인도의 텔리를 점령해 대제국을 건설했다. 지금도 티무르는 우즈베키스탄의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다. 티무르는 잔인한 정복자였으나 페르시아 문화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다.

사마르칸트에는 칭기스칸에 의해 파괴된 당시보다 더욱 화려하고 장대한 건축물들이 세워졌다. 칭기스칸은 이 길을 다니며 파괴했고 티무르는 이 길을 통해 기술자와 예술가들을 모아 도시를 건설했다. 그러나 칭기스칸이 도로까지 없앤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참제도를 더욱 튼실하게 하여 대제국의 소통을 도모했다. 따라서 칭기스칸의 중앙아시아 지배 이후 실크로드는 동서교역로의 역할이 한층 더 강해졌고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오아시스 도시들은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거점으로 나날이 변창했다.

칭기스칸이 죽은 후 중앙아시아는 우즈벡 민족이 실권을 잡았다가 제정러시아에 이어 소련이 지배했다. 그 기간동안 실크로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한 군사도로로 사용됐고 나날이 파괴되어 갔다. 1991년 중앙아시아 각국은 독립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자 실크로드는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실크로드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9세기 독일의 여행가 리히터 호벤이었다. 근년 들어 역사탐방과 관광 붐에 따라 실크로드라는 호칭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 비단이 가진 아름다운 이미지와 신비스러움에 세계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길의 맨 끝에서 바라보는 측과 그 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실크로드의 의미도 엄청 다를 것이 틀림없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가 걸었던 이 길에 서서 문명의 통로를 찾는 순례자는 언제나 시작하는 마음이리라.



## 역사도시 히바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이국땅의 역사현장을 탐방하는 것은 신비롭고 경이로운 체험이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탐방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목적지인 고대도시 히바는 이 나라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750킬로나 떨어진 곳이라 우즈베키스탄 항공 국내선을 이용했다. 가도 가도 끝없어 보이는 황토색 사막 위를 날아 약 1시간40분 만에 히

바 부근 우르겐치 공항에 내렸다. 많은 역사를 간직한 히바는 고대 페르시아 시대부터 카라쿰 사막의 출입구 노릇을 해왔다. 그 옛날 통상을 목적으로 낙타를 타고 여행하는 상인 무리를 캐러밴 또는 대상(隊商)이라 불렀다.

이들의 휴식지로 높은 성벽을 쌓아 보호구역을 만든 히바는 오아시스이면서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도시였다. 항상 맑은 물이 샘솟는 우물이 많았던 것도 이 도시의 매력이었다. 실크로드의 길목으로 번성을 누리기도 했지만 숱한 외침에 시달려 이중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성안에는 흙벽돌로 지은 작은 집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나있다. 유물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살고 있다. 1990년에는 도시 전체를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 대상들의 휴식처 부하라에 밤이 오면

해 질 무렵 또 다른 유적지 부하라를 찾았다. 오아시스의 도시 부하라에서 밤을 맞는다. 서쪽 하늘이 서서히 오렌지색으로 물들어가면 주위는 점점 어두워진다. 천년의 고도 구시 가지의 유적지 곳곳에 인공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한다. 햇살 따갑던 대낮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현란한 색상의 불빛으로 수많은 모스크와 마드라사 건물들은 저마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밤풍경이 궁금해 거리로 나선다. 이국땅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호사를 누린다. 그것도 아름다운 오아시스에서의 밤이다. 밤하늘에는 반달이 슬며시 얼굴을 내보이고 있다. 이국땅을 여행할 때의 묘미는 모르는 세계에 들어가 보는 것이다.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신발 끈을 다시 졸라맨다. 옛날 실크로드 상인들의 숙소가 있던 오아시스 호수 즉 '라비하우즈' 부근을 산책했다. '타키'라고 부르는 상점과 유적이 모여 있는 곳이다. 청옥색의 타일로 벽을 장식하고 아치형으로 열린 점포들은 제각기 다른 색상의 조명을 밝혀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놀라운 점은 각 상가의 건물들이 대개가 3,4백 년이 넘은 것으로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 옛날 대상들이 고난의 여정을 마치고 낙타도 충분하게 먹이고 자신도 휴식을 취하던 바로 그 공간이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한다. 여행에서 만나는 감동의 찰라야 말로 여행작가에게 있어서 작품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중국 당나라

때 벌써 이곳 부하라에 대해 편안할 안(安)자를 넣어 안국(安國)으로 불렀다. 현장스님의 '대당서역기'에도 자신이 잠시 머물렀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한다.

다음날 '사마르칸트'에 도착했다. 이 도시 이름에는 묘한 울림이 있어 여운이 남는다. '푸른 도시', '동방의 진주' 등 많은 별칭을 가진 이곳은 어느 시대에서도 실크로드의 중심도시로써 발전해 왔다. 몽골군의 공격으로 도시는 폐허가 됐으나 다시 복원시킨 것은 정복자 티무르였다. 티무르는 손에 넣은 영토로부터 불러들인 우수한 예술가와 건축가들의 힘을 동원해 사마르칸트를 제국의 도시로 조성했다. '사마르칸트 블루'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청색의 돔이 보여주는 오묘한 색상의 조화 때문일까. 이 장대한 건축물들은 6백여 년이 경과한 지금도 그 찬란한 자태로 여행객들의 눈길을 끈다. 실크로드를 경유하여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향할 때 천산남로나 천산북로 어느 길을 통해도 사마르칸트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수 많은 대상들이 모여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한 사마르칸트는 일찍부터 국제적인 문화교차로의 역할을 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시가지 남쪽에 있는 알라트산의 만년설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다.



## 청정 산악국가 키르기스스탄

국경을 넘어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에 도착했다. 아침에 일어나 일출을 보려고 베란다로 나갔다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시가지 건너편에 펼쳐진 하얀 산들의 파노라마, 아침 햇살을 받으며 황금빛으로 빛나는 만년설이 경이로웠다. 비슈케크에서는 시가지 어디서도 만년설을 머리에 두르고 있는 천산산맥의 지맥 알라트 산이 보인다.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이용하여 나무들을 잘 가꾸어 도시 전체가 공원처럼 느껴진다.

인구 85만의 수도이지만 시장에 가보면 우리와 닮은 얼굴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중국의 서쪽에 위치하며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1세기 무렵 흥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6세기에는 돌궐, 7세기에는 당나라의 지배를 받았다. 8세기에는 다시 위구르의 침략을 받았으며 키르기스스탄 제국을 건설하기도 했고 13세기에는 몽골 제국의 아래에 있었다. 소련의 지배를 받으면서 도시의 모습이 바뀌었다. 도로는 바둑판처럼 형성되었고 동일한 모습의 5층 건물이 줄지어 섰다. 근래 들어 혁명으로 독립국가가 된 이후에야 도심에는 근대적인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

알라알차 국립자연공원을 방문했다. 비슈케크로부터 불과 30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나 도시와 완전히 별천지였다. 잘 자란 노란주나무들을 보면서 30분 정도를 오르면 위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시가지 남쪽에 있는 알라트산의 만년설이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다.

쪽 능선 뒤편에 은빛으로 빛나는 설산들이 모습을 나타낸다. 때마침 신비스러운 운무가 피어올라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동서양을 이어주는 물자교류와 소통의 실크로드에도 휴양과 심신의 치유를 겸할 수 있는 중간지역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있다. 청정 산악국가 키르기스스탄이 21세기 실크로드의 길목에서 대자연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 중앙아시아의 진주 이식쿨 호수

아름답고 신비스런 이식쿨 호수는 만년설을 하얗게 머리에 두른 천산산맥의 지맥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시 동쪽 인근에 있으면서도 소련 치하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외국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숨겨져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는 이식쿨 호는 해발 1600미터에 위치하고 있으나 특이하게 겨울에도 얼지 않는 호수이다. 따라서 키르기스어로 ‘이식’은 ‘뜨거운’, ‘쿨’은 ‘호수’라는 뜻으로 ‘뜨거운 호수’라는 말이 된다. 동서 길이 180km, 남북 폭이 30~70km, 전체 둘레길이가 700km가 넘어 경상북도의 면적과 비슷하다고 한다. ‘키르기스의 바다’로도 불리는 거대한 호수는 이 나라 관광의 주 수입원이다.

호수의 투명도는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배를 타고 위에서 물속을



맑고 푸른 물빛이 아름다운 이식쿨은 경상북도와 비슷한 면적이다.  
호수 바닥에 잠겨 있는 고대 왕국의 이야기는 신비감을 더해준다.

들여다보면 고대도시의 흔적이 보인다고 한다.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은 고대 왕국의 이야기는 많은 상상을 불러와 더욱 신비감을 더해준다. 가끔 호반을 따라 청동기시대의 유물들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소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는 이미 1958년부터 수중탐사를 시작했었다. 그 결과 성벽의 흔적 등 거대한 취락 구조를 발견하고 많은 유물들을 인양했었고 지금도 탐사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 NHK-TV도 수중촬영에 성공하여 ‘호수바닥으로 사라진 길-비밀의 호수’라는 프로를 방영해 관심을 끌었다.

사실 이식쿨 호수 옆으로 통하는 실크로드는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가진 루트이다. 우선 중국 실크로드의 개척자로 불리는 한나라의 장건이 흉노 작전을 위해 이곳을 지났다. 인도로 향하던 현장법사도 남쪽 호반을 따라 통과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길은 그 당시 이미 정비된 실크로드 오아시스 루트로 고구려유민 고선지 장군이 서역원정을 단행할 때 행군했던 길이기도 하다. 당나라 시인 이백의 출생지도 호수 남쪽 눈 덮인 천산산맥 연봉 아래 였는데 상인이었던 부친을 따라 그곳에서 성장했다고 한다.

비슈케크에서 출발하여 3시간 정도 달리자 이식쿨 호수의 서쪽 끝자락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푸른색의 호수를 옆으로 보며 나란히 달려간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약한 녹색에서 푸른색까지 수면의 색상이 하루에도 여러번 다양하게 보여진다. 멀리 잔잔한 파도 위에 빛의 입자들이 내려앉으면 수많은 반딧불처럼 반사되어 파

동으로 퍼져 나간다. 지금은 세계각지에서 연간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한다. 호수 주위에는 여러 개의 마을과 도시가 있어 여행자들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유람선을 타고 호수 가운데로 나아가 건너편 만년설의 연봉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영혼까지 맑아지는 것 같은 평안함이 밀려온다. 이식쿨 호수는 신이 키르기스스탄에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 황금인간 신라 금관과 연관

대구와 자매결연 도시이며 카자흐스탄 제2의 도시인 알마티시를 찾았다. 그곳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평원을 누비며 살아온 유목민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곳을 방문한 큰 목적은 유명한 '황금인간'을 보기 위해서였다. 한반도의 황금문화 특히 신라 금관과의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려했다. 금은 시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 왕들은 종종 황금으로 자신을 감싸면 영생할 것으로 기대한 모양이다. 몸 전체를 황금으로 만든 옷으로 감싼 황금인간이 고분에서 출토됐다. 황금은 고대 유라시아 초원과 한반도를 이어준 가교이기도 했다.

1969년 카자흐스탄 과학아카데미 탐사팀은 알마티시 동쪽에 있는 이시크 고분을 발굴하던 중 황금 조각을 몸에 두르고 묻혀있던 한 유구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것은 기원전 4세기경 스키타이의 부족인 사카족 문화권에 속하는 고분으로 한 귀족 청년이 잠들어 있었다. 4천여 장이나 되는 황금조각으로 옷을 지어 주검에 입혔기 때문에 황금인간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이 발굴은 고고학계를 놀라게 하는 세계적 발견이 됐다. 황금인간은 중앙묘실이 아니라 측실이었던 관계로 도굴을 면했다고 한다. 발굴 결과, 기타 부장품으로 약 4천여 점의 황금유물도 함께 나왔다. 이들 고분군



기원전 4세기경 카자흐스탄 스키타이 부족 고분에서 발견된 황금인간.  
고대 유라시아 초원과 한반도를 이어준 황금문화의 상징이다.

의 무덤 구조와 유물들은 그 성격으로 미루어 고대 신라의 '적석목곽분'의 원류로 추정되고 있다.

또 그곳에서 발견된 암각화는 우리나라 울주군 천전리 암각화나 반구대 암각화와도 유사성을 보이며 나무에 달아놓은 천조각 등 한반도의 샤머니즘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후 실물크기로 복원된 황금인간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외 이동전시를 통해 스키타이 문명의 놀라운 황금 공예기술을 세계각지에 소개했다.

황금인간의 세부장식품으로 새겨져 있는 나무, 새 모양 장식이나 머리 관 부분과 각종 조임쇠 장식 등에 대해 학자들은 신라금관이나 다른 황금유물과 거의 꼭 같다고 한다. 신라는 금관 등 황금유물에서 나타나듯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서 이 황금문화의 전성기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신라는 세계 현존하는 여러 금관 중 7개나 만들어낸 '금관의 나라'로 자리매김했었다. 스키타이 문명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쪽에서 동쪽으로 몽골 초원으로까지 확산됐다. 이 황금문화의 전파자는 스키타이와 흥노를 비롯한 유목기마민족들이며, 그 통로는 다름 아닌 알타이산맥에서 동서로 뻗어나간 초원 실크로드이다. 스키타이 문화는 인류에게 실로 풍부하고 값진 문화유산을 남겨놓았다. 그 가운데 으뜸가는 것은 단연 신비의 경지에 이른 황금공예였고 그 진수가 황금인간과 신라 금관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날 독립을 성취한 중앙아시아 각각의 나라들은 실크로드의 전성기가 다시 온 것처럼 바깥세상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하늘길로 왕복하는 정기직항이 날아다니고 닫혀있던 육로의 국경도 여러 곳 개방돼 숨통이 트이고 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하늘은 울타리를 치지 않는다'는 말이 생각난다.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중앙아시아 각국을 육로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횡단 개인여행도 가능해졌다. 고난의 길로 여겨지던 실크로드 여행이 요즘처럼 우리 들 곁에 가깝게 다가온 것도 역사상 처음일 것이다. 여행은 떠나는 일이다. 그래서 또 다른 문명, 또 다른 신비를 찾아서 이번 봄에도 유목민처럼 더욱 서쪽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구도자라는 느낌으로 결국은 자신을 알기위해서 일 것이다. 실크로드 여행은 계속된다.



##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구경제계 원로 취재일기



김진욱 \_ 영남일보 논설위원

필자는 영남일보에 근무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6년간 대구상공회의소(대구상의)에서 벌어지는 일을 취재하는 파트에서 일했다. 언론계 용어로 말하면, 대구상의 출입기자를 6년 한 것이다. 그래서 대구상의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지금도 많다. 게다가 대구상의는 영남일보 본사(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걸어서 2~3분 거리에 있다. 출근하는 날이면 대구상의 건물 앞을 지나가야 한다. 대구상의 앞을 지날 때, 출입기자 시절의 일들이 떠오를 때가 많다. 대구상의에서 만났던 기업인들이 문득 떠오르면 그가 들려줬던 대구경제계의 뒷이야기도 머리를 스쳐 간다. 대구상의를 출입하면서 실물경제에 대해 많이 배웠고, 추억거리도 만들었다. 34년간 영남일보에 재직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웠던 일도 대구상의 출입기자 때 발생했다. 그날은 대구상의 회장을 선출하는 날이었다.



채병하 전 회장

### 가슴 졸였던 대구상의 회장 선거일

1997년 4월 어느 날. 대구상의 회장을 뽑는 날이었다. 채병하 대하통상 회장과 권성기 <주>태왕 회장이 맞붙었던 선거였다. 당시 영남일보는 석간이었다. 오후에 배달되는 신문에 기사를 실으려면, 제작 과정상 늦어도 오전 11시쯤에는 원고를 마감해야 했다. 그날 필자는 회장 선출이 이뤄지는 대구상의 대회의실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다. 오전 11시쯤이면 누가 회장으로 선출될지 윤곽이 나올 것 같아, 당일 신문에 마감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대구상의 회장 선거를 뽑는 방식은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누가 당선될 것이란 윤곽이 나오더라도,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예상대로 오전 11시쯤 당선자 윤곽이 나왔기에, '채병하, 대구상의 회장 당선'이란 내용의 원고를 마감했다. 신문 초판이 배달될 오후 1시쯤에는 당선자가 확정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채 회장의 선출 기사가 실린 영남일보는 오후 1시쯤 대구 전역에 배포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 때문에 투표 절차가 지연됐다. 당선자가 오후 4시쯤 확정됐다. 2파전으로 치러진 선거가 아직 진행 중인데, 당선자가 결정됐다는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배달된 것이다. 선거에 진 측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엄청난 항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투표장에는 영남일보가 배달되는 일이 없어야 했다. 신문지국에 연락해 영남일보가 대구상의로 배달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행여나 실수로 배달되는 일이 없도록 후배 기자에게 대구상의 건물 앞을 지키게 했다.

영남일보가 배포된 이후 당선자가 확정되기까지 3시간은 필자가 경험한 가장 길고, 가슴 졸였던 3시간이었다. 결과는 기사대로 돼, 특종을 한 셈이 됐다. 다른 석간신문은 채 회장 선출 기사를 당일 신문에싣는 것을 포기했었다. 당시 대구경제

계는 그날 열린 회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필자가 당일 신문에 신겠다는 모험을 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날 선거의 후유증은 컸다. 대구경제계는 채병하 회장 진영과 권성기 회장 진영으로 양분됐다. 치열했던 선거가 남긴 앙금이 커서, 아주 오랫동안 대구경제계의 갈등과 반목이 이어졌다. 대구상의 회장 선거 때문에 야기된 지역 경제계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경선 대신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채 회장 이후 대구상의 회장을 맡았던 노희찬 삼일방직 회장, 이인중 화성산업 회장, 김동구 금복주 회장, 진영환 삼익THK 회장, 이재하 삼보모터스 회장, 현 회장인 박윤경 <주>케이케이 회장 모두 추대로 회장이 됐다. 회장 경선의 후유증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이인중 전 회장



김동구 전 회장

## 기억나는 대구상의 회장들

필자가 대구상의를 처음으로 출입할 때는 IMF 외환위기 발생 1년 전인 1996년도였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이후에도 대구상의를 출입했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 대구경제계의 움직임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봤다. 동국무역·갑을·청구·우방·보성 등 대구를 대표했던 기업들의 부도 기사를 끊임없이 썼던 시절이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시기여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몸부림도 처절했다. 대구기업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중앙정부와 금융당국에 전달할 채널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 채널은 채병하 대구상의 회장이었다.

대구기업들이 중앙에 도움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창구는 대구상의였다. 대구상의 회장에게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에다 채 회장은 정치적 인맥도 좋았다. 당시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대로 출범한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채 회장은 청와대 인사뿐 아니라 자민련 측 사람들과도 가까웠다. 부도난 기업의 사주가 채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채 회장은 이들을 돋기 위해 중앙과 접촉하는 모습을 대구상의 출입기자로서 여러 차례 봤다. 채 회장에게 힘이 실리다 보니, 채 회장은 당시 문희갑 대구시장도 어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대구시와 대구상의가 대립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채 회장이 대구상의 회장을 그만두는 날까지 대구시와 대구상의의 대립이 이어졌다.

채 회장은 필자에게 아주 소중한 취재원이기도 했다. 필자가 지역경제계 이야기를 한 가

지 하면, 채 회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들려줬다. 훗날 그는 대구에서 자민련 후보로 두 번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고, 그 여파로 회사가 부도나는 고초를 겪었다. 가장 많이 봤던 대구상의 회장이기에, 필자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구상의 회장은 채병하 회장이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

채 회장 뒤를 이어 대구상의 회장을 맡은 인물은 노희찬 삼일방직 대표다. 노 회장은 채병하 회장과 함정웅 회전니트 창업주(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와 아주 가까웠다. 그래서 당시 대구 섬유업계의 3인방으로 불렸다. 3인방 중 노 회장만 지금도 현재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인중 화성산업 회장과 김동구 금복주 회장은 대구상의 회장이 되기 전, 필자가 처음 만났을 때의 이미지 때문에 지금도 좋은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인중 회장은 1995년 필자가 사회부 기자를 할 때 처음 봤다. 당시 납치를 당했다가 구출된 이 회장의 친동생을 인터뷰하려 무작정 친동생 집에 갔다. 초인종을 누르니 동생 집에서 나온 사람이 이 회장이었다. 이 회장은 "동생은 아직 기자를 만날 컨디션이 아니니 차나 한잔하고 가라"면서 필자를 집안으로 들였다. 첫인상이 참 온화했다. 훗날 경제부 기자로 이 회장을 다시 만났을 때도, 처음 봤을 때의 온화함은 여전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이 회장을 온화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구상공회의소 전경

김동구 회장은 1996년 중국 출장을 같이 갔을 때, 저녁 자리에서 그가 했던 농담 때문에 유쾌한 인물로 기억한다. 그는 일행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여기에 술 제조 면허가 있는 사람은 나 뿐이니, 폭탄주는 내가 만든다"고 말해 일행들을 웃게 했다. 훗날 금복주 출입기자로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금복주 공장을 찾아갔을 때, 김 회장은 회사 입구까지 필자를 배웅할 정도로 외부 손님에게 깍듯했다. 필자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 대구상의 회장 때는 약속한 시간보다 5~10분 일찍 도착해 상대를 기다리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강해 보이는 걸모습과 달리 마음은 부드러운 분이라는 게, 내가 김 회장에게 갖는 인상이다. 그래서 금복주가 지역사회에서 비판받을 일이 생겼을 때, 필자는 비판을 잘 새겨서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나길 응원한다.

김 회장이 대구상의 회장으로 추대될 당시 그는 여러 차례 고사했다. 금복주가 대구의 주력 업종이 아니고, 아버지(김홍식 금복주 창업주)가 대구상의 회장을 맡았었는데, 아들까지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인중 회장을 비롯한 많은 대구의 기업인들이 김 회장에게 회장을 맡으라고 요구했다. 필자 역시 칼럼을 통해 '금복주는 대구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회사인만큼 금복주 대표는 대구상의 회장을 맡아 지역사회에 봉사해

야 한다'고 적었다. 김 회장은 필자에게 "김 부장(당시 필자는 경제부장이었다) 칼럼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그는 단임으로 끝내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김동구 회장의 뒤를 이은 진영환 회장, 이재하 회장, 현 박윤경 회장은 필자와 만난 적이 없거나, 특별히 기억날만한 인연이 없는 전·현직 대구상의 회장이다. 박윤경 회장은 25대 대구상의 회장이다. 채병하 회장 앞의 강재조 회장은 14대 회장이다. 초대 회장부터 14대 회장까지 7명의 기업인이 회장을 맡았다. 연임을 한 회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14대 회장까지는 필자가 대구상의를 출입할 때 이미 고인이 되셨거나, 현역에서 물러났을 때라 볼 적이 없다.

## 대구상의에서 만난 기업인들

필자가 대구상의 출입기자를 하면서 만난 기업인 중에는 대구상의 회장 이상으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인은 고인이 된 백육기 동국무역 창업주다. 대구상의에서 행사할 때 뿐 아니라 동국무역 대구사무실에서도 자주 봤던 분이다. 필자를 손주처럼 맞아주셨다. 누가 대구경제계에 원로가 없다고 말할 때, 필자는 백육기 회장을 원로의 전형으로 꼽는다. 동국무역이 대한민국의 대표 섬유업체로 건재할 때, 회사의 규모나 오너의 인품이 다른 기업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백 회장을 떠올리면 IMF 외환위기 때 동국무역 계열사 매각 건이 생각난다. 당시 어느 섬유업계 인사가 필자에게 기사 거리라며 제보했다. 내용은 '동국무역이 계열사인 구미의 동국합섬 공장을 매각한다. 내일부터 주가에 반영되는데, 2주 만에 두 배로 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백 회장을 찾아가 매각 여부를 물었다. 그랬더니 백 회장은 "기사를 안 쓴다면 알려주겠다"고 했다. 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니, 구체적인 매각 금액까지 알려졌다. 약속대로 동국무역이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기사를 쓰지 않았다. 특종을 놓쳤지만, 백육기 창업주와의 신뢰 관계는 더욱 좋아졌다. 동국무역의 주가가 소문대로 2주 만에 두 배로 뛰었던 것이 신기했다. 물론 필자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기에 동국무역 주식을 살 일도 없었다.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주식투자를 하면 법률 위반이기에, 주식 투자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다.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대구상의에서 만났다. 1996년으로 기억한다. 그가 쌍용중공업 대구공장장(상무)이자 대구상공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당시 '강덕수 상무'와

들이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대구 경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당시 쌍용중공업 대구공장은 섬유기계를 생산해 중국 수출도 하고 지역 섬유업체에도 팔았다. 그래서 '강 상무'는 개인 지역 섬유업체 대표들을 예우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 섬유업체 대표들에게 '을(乙)'의 위치에 있던 '강 상무'는 훗날 지역 섬유업체 대표들과는 체급이 다른 대기업 총수로 성장했다.

STX그룹이 한창 주가를 올릴 때, 강 회장은 자신과 함께 대구상공의원으로 활동하던 지역 경제인들을 STX공장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또 대구에 선박 엔진을 제조하는 <주>STX 메탈 공장을 건립했다. 그래서 당시 지역경제계에서는 강 회장이 대구에서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STX그룹이 해체된 것은 대구경제에도 마이너스다.

## 지역발전을 위한 대구상의의 역할

대구상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 iM뱅크(대구은행)를 비롯해 지금은 사라졌지만 조선생명, 동양투신 같은 대구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설립을 주도했다. 엑스코와 대구FC에 지역기업이 대거 투자한 것도 대구상의가 설립을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구와 삼성그룹의 인연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도 했다. 삼성이 대구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삼성상회(삼성물산의 전신)터를 기념 공간화하고, 이병철 창업주의 동상을 옛 제일모직 부지 인근에 세운 2010년의 '호암 이병철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을 주도한 것도 대구상의였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역할도 맡았다. 대구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이 대구상의 전의에서 시작됐다.

대구상의가 지역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 때문에 대구상의 회장의 위상은 높다. 그래서 대구상의 회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직책이 12개나 된다. 대한상의 부회장을 비롯해 대구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대구FC 이사회 회장, <사>대구 사랑운동지원기금 이사, 대구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대구테크노파크 이사회 이사, 대구시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 파워풀 대구페스티벌조직위원회장을 맡게 된다.

대학과 관련된 직책도 주어진다. 대구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위원,

경북대학교 대구경북지역혁실팸플랫폼(RIS) 지역협업위원회 위원, 대구보건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위원이 그것이다.

예전에는 대구상의 회장의 부수적 직책이 22개나 된 적도 있었다. 지금은 12개로 줄었으니 대구상의 회장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해석이 나올 법하다. 대구발전을 위한 대구상의 회장의 역할이 예전보다 소극적이 된 지는 제법 오래됐다. 10여년 전 남부권 신공항 유치 경쟁을 별일 때, 그런 조짐이 시작됐다. 지금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으로 각각 추진 중이지만, 10여년 전만해도 영남지역 한 곳에 남부권 신공항을 짓는다는 정부 방침하에 부산과 대구경북이 경쟁을 벌였다.

당시 부산에서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부산상의 회장이 주도하고, 많은 기업인이 동참했다. 반면 대구에서는 경남 밀양에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앞장서기는커녕 동참한 기업인이 한 명도 없었다. 신공항 유치경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대구경제계가 신공항 유치에 큰 관심이 없었다. 대구발전에 앞장서는 기업인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게다가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일반인도 알 만한 대구의 기업인을 꼽기가 쉽지 않다. 대구상의 앞을 지나가면서 "요즘 대구를 대표하는 기업인은 누구지?"라는 질문을 필자 자신에게 하면 언뜻 떠오르는 인물이 없다. 언젠가는 대구상의 앞을 지나가면 떠오르는 기업인이 다시 나타나길 바란다. 그런 날이 오면 대구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활기찬 것이다. 그때는 대구상공회의소도 예전처럼 대구경제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을 것이다.



# 디지털 시대의 정치집회 문화 분석

19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의 반정부 시위와 집회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지녔으며, 때로는 폭력적인 양상을 띠었다. 시위를 진압하는 군인이나 경찰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화염병을 던지는 행위가 정당한 저항의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의 집회 현장은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과 관련된 최근의 집회에서는 정치 참여 방식이 크게 변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회 참여 방법부터 안전사고 방지, 그리고 선결제 정보 공유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보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며 평화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곳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젊은 세대는 응원봉과 K-팝을 활용해 집회를 마치 축제처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전통적인 민중가요에 K-팝의 에너지를 더하며, 보다 생동감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세대는 단체 채팅방과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의견과 가치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청소년 세대 역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직접 집회 현장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노년층 또한 뒤쳐지지 않기 위해 드론 촬영을 통해 현장을 기록하고,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집회의 다양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세대와 방식의 차이를 넘어, 모든 시민이 각자의 방식으로 집회와 정치 참여에 새로운 색깔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 디지털 시대 공중의 세 가지 유형

디지털 시대의 공중(publics)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Bruns, 2023). 첫째, 개인적 퍼블릭(personal publics)은 개인의 자아(ego)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네트워크로, 개인이 주도하는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통해 여러 소셜 네트워크가 통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활동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접할 수 있다.

둘째, 이슈/관심 퍼블릭(issue/interest publics)은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커뮤니티로 정의된다. 이 유형은 해시태그와 같은 사회적 식별자를 활용하여 조직적인 토론, 아이디어 교환,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 걸친 집단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연결된 퍼블릭(connected publics)은 이슈 퍼블릭에서 한 단계 확장된 형태로, 더 넓은 주제 네트워크와 결합되어 형성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개별 퍼블릭들을 하나의 큰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목소리를 강화하고 토론의 범위를 확대하며, 중요한 이슈에 대해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와 의견이 논쟁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를 부각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래 그림을 설명하면, 이는 네트워크 퍼블릭의 통합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박한우 \_ 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뉴욕주립대 박사

ChatGPT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도표에서 사용된 색상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형 간의 구분을 돋기 위해 활용되었다. 동심원의 크기는 각 유형에 참여하는 공중의 규모를 나타내며, 확대된 원은 개인 또는 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화살표는 개인적 상호작용이 점차 확대되어 더 크고 상호 연결된 공공적 공간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퍼블릭들의 배치는 이슈/관심 퍼블릭이 상단에 위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개인 퍼블릭에서 시작된 네트워크가 수평적 및 수직적 확장을 통해 연결된 퍼블릭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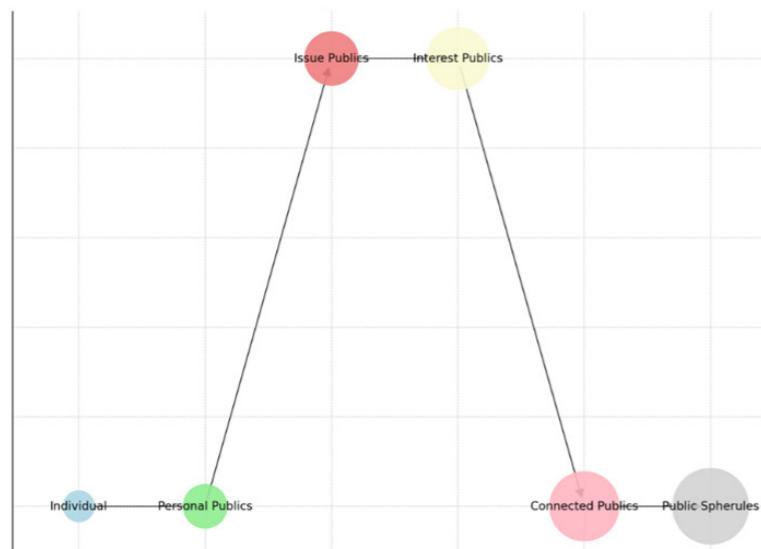


그림. 다양한 개념과 공중(publics) 수준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통합 도표

출처 : 필자가 ChatGPT를 활용하여 작성

## 탄핵 집회, 강한 공중과 약한 공중

탄핵 집회에 참여한 개인이나 집단이 공통된 관심사와 정체성을 중심으로 상당한 군집화(clustering)를 형성하는 현상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해석될 필요는 없다.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환경에서 군집화는 특정 이슈나 가치를 공유하는 소집단이 사회적 네트워크 내부에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며, 이는 반드시 더 넓은 공공 영역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Krackhardt & Stern, 1988). 오히려 이러한 군집적으로 연결된 공중

은 탄핵 찬성과 반대라는 국가적 정치 논쟁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의 공적 공간 안에 유기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 진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로 다른 형태의 강한 공중(strong publics)과 약한 공중(weak publics)의 특성을 띠 수 있다. 강한 공중은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전통적인 연고 중심의 사회자본에 기반하며, 비교적 위계적인 구조를 따른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이념적 일관성과 명확한 목표 지향성을 바탕으로 보다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담론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약한 공중은 가족, 친구, 지인, 동료, 유명인 등 다양한 사회적 접촉으로부터 형성된 일시적(ad-hoc) 연결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질성이 존재하며, 이러한 다양성이 정보 흐름 속에서 우연한 발견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약한 공중은 보다 개인적이고 정서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감정적 공감과 개별적 경험의 공유를 통해 참여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강한 공중과 약한 공중은 각각 고유의 담론적 관행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탄핵 집회와 같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강한 공중은 조직적 결집력과 전략적 목표 설정을 가능하게 하고, 약한 공중은 다양한 목소리와 창의적인 참여 방식을 통해 공론장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중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은 민주주의 담론을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으로 만드는 핵심 동력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이번 대통령 탄핵 집회 역시 그 과정이 완전히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중이 수평적 혹은 수직적 구조를 이루며 관련 이슈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중은 상위 수준의 공적 공간 안에 포함되면서, 더 높은 수준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사 집단을 형성한다. 이 과정은 하위 수준의 모든 의사소통 및 정치적 행동 공간을 완벽하게 포괄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다른 공중이나 공간들과 강하거나 약한 친화성을 가지며, 다중적인 특성(multiplicity)을 드러낸다. 이는 공중 간의 경계가 유동적이며, 다양한 이슈와 상황에 따라 상호 연결성과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트리플 공중 이론(triple publics theory)은 탄핵 집회와 관련한 이러한 공중 간의 복잡한 상호 연결성과 유동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이 이론은 개인적 퍼블릭, 이슈/관심 퍼블릭, 연결된 퍼블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 담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 도구로 작용한다.

## 정보 매개의 변화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개념은 학문 분야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기술 발전과 정보 매개 방식의 변화에 주목하여 민주주의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쿼드러플(quadruple) 구분은 특히 탄핵 집회와 같은 정치적 현상을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틀을 제공하며, 이를 트리플 공중 이론과 연결하여 논점을 전개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audience-based democracy이다. 이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뉴스를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이고 동질적인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전통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이 시기의 시민들은 정보에 대해 비판적 사고보다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미디어의 일방적 전달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두 번째 유형은 community-engaged democracy이다.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이질적인 속성을 갖게 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대중 민주주의 형태이다. 이 시기의 주요 특징은 소속 집단에 대한 강한 유대감과 함께, 다른 세계와의 연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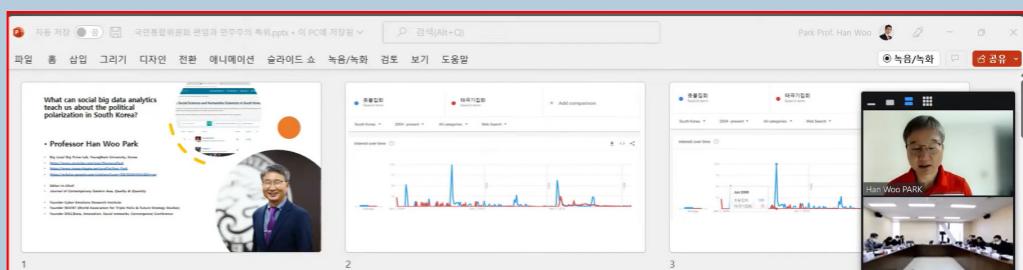
첫째와 두 번째 유형의 차이점은, 1차가 방관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 머물렀다면, 2차에서는 집단적 소속 의식과 능동적인 관심이 중요하게 부각된 점이다. 전자가 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지역사회 중심의 정치 참여, 그리고 제한된 정보확산에 기반한 시기였다면, 후자는 대중 매체의 확산으로 인해 보다 광범위한 정치 참여가 가능해진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정보 매개 방식 역시 변화했다. 초기에는 신문, 잡지, 단행본과 같은 인쇄 매체가 주요한 정보 전달 수단이었다면, 이후에는 라디오와 TV 같은 전자 매체를 통해 정보가 보다 빠르고 널리 확산되었다.

세 번째 유형은 fandom-engaged democracy로, 인터넷 기술과 모바일 미디어의 보급을 통해 이루어진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크 민주주의이다. 이 시기에는 대중이 아니라 특정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인 분증(紛衆)이 등장하며, 이들은 선별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정보 전파와 같은 디지털 소통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류하며, 더욱 개별화된 소통이 가능해진다. 정보 매개 방식에서도 포털, 블로그, 카페, 포럼, 메신저 등 양방향 정보 교류가 가능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분산적 정보 흐름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fortress(요새)-centred democracy이다.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 정치 참여 양상을 드러낸다. 정보 매개 방식에서도 디지털 플랫폼과 전통적 매체가 혼재한다. 이념적 양극화와 정치적 포퓰리즘 등과 함께 나타난 형태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 가치관, 세계관에 기반하여 하나의 요새를 구축한다. 이들은 분화된 집단으로서 내부 결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증오와 반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 네 가지 민주주의 유형은 기술 발전과 함께 나타나지만,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함께 부각되며, 특정 시대와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탄핵 집회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정보 매개 방식의 진화가 어떻게 공중의 구조와 정치 참여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탄핵 집회는 네 가지 유형의 민주주의의 특성이 혼재하면서도 뚜렷이 드러나는 사례로, 기술이 정치 참여의 방식과 공중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의 한 장면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필자가 "What Can Social Big Data Teach Us About the Political Polarization in South Korea?"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의 발제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탐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정치적 갈등과 분열의 양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공론장과 민주주의 담론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 회의는 팬덤 문화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디지털 시대의 공중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치적 소통과 국민 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jfACv2S3QFw>

## 선거에 대한 공중의 신뢰

탄핵 집회를 통해 드러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선거에 대한 공중의 신뢰였다. 이는 단순히 국내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제 저명 학술지인 Public Opinion Quarterly 88권은 "The Global Crisis of Trust in Elections"라는 특별호를 발간하며, 선거 신뢰에 대한 학계의 깊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특별호에서 객원 편집인들은 선거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조차도 선거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Kerr, King, & Wahman, 2024).

선거를 위협하는 요인은 기상 악화와 같은 자연재해부터 양극화, 가짜뉴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 그림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모든 유형의 선거 비상사태와 위기 상황을 모니터링한 IDEA 대시보드이다.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은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한국은 색깔이 표시되지 않은 선거 무재해 국가이다.



그림. 재난이 선거에 미치는 위기 상황

출처 : <https://www.idea.int/election-dashboard-election-emergency-and-crisis-monitor>

그렇지만 개인 및 국가 수준에서의 선거 신뢰 차이와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은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탄핵 집회에서 나타났듯이, 선거 신뢰의 저하가 발생하는 주된 배경과 원인은 정치적 견해의 극단화로 인해 선거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약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현상이다.

특히 계층·세대·지역·이념으로 분화된 공중이 이슈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군집화되면서 사회적 분열과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난다. 나아가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 (misinformation)가 빠르게 퍼지면서, 선거 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탄핵 집회에서 법원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단순한 가짜뉴스 문제를 넘어 국가 선거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으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신뢰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가 연임에 실패했을 때 국회를 무장하여 위협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이번에 일어난 한국의 법원 폭동 사태 역시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건들은 투명한 정보 전달과 공정한 선거 관리 시스템 강화 등 구조적 접근을 요구 하지만, 단순히 선거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될지 의문이다. 이는 공공 영역과 공적 신뢰의 재건이라는 더 넓은 민주주의 과제와 직결되어 있음이 분명하며, 동시에 약한 공중의 시대에서 강한 공중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커뮤니티 및 팬덤 민주주의에서 요새 민주주의 체제로의 빠른 이동이 한국 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 원고는 필자가 집필중인 '디지털 놀이 공중과 정치참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시인 구상의 친구인 포대령과 깡패화가 이야기



구활\_수필가·전 매일신문 문화부장

“내가 장군으로 진급하면 막걸리를 싣고 다니는 자전거 앞뒤로 붉은 별판을 붙이고 출근할 거야. 내기를 해도 좋아.”

“나는 죽을 때 운명하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죽을거야. 하얀 화선지 위에 노란 물감을 풀어놓은 다음 청산가리를 마시고 피를 토하면 어떤 그림이 될지는 그게 궁금한거야. 반드시 그렇게 죽을거야.”

첫째는 현역 육군 포병 대령 이기련이 자주 하고 다닌 말이며 다음은 주먹 하나로 동양 3국을 휩쓸고 다닌 깡패 화가의 유언이다. 두 분 모두 박정희 대통령을 박첨지라고 불렀던 시인 구상의 친구들이다. 잡놈은 잡놈들이 알아주고 괴짜는 괴짜들끼리 친한 친구가 되는 이유를 이 이야기가 증명해 주고 있다.

구상 시인은 기인이 없고 위트와 유머가 없는 세상은 적막하다고 했다. 농담이 사라져 황량한 세상으로 변해 버린다면 문학, 미술, 음악 등 모든 예술들이 화장터로 실려 가 어둠의 천지로 변해 버릴 것이다. 미국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들의 정신 속에 유머가 버티기 있기 때문이다.

포대령 이기련은 육사 3기생으로 우리나라 포병을 창설한 충직한 군인이다. 1916년 평남 출신으로 평양고보와 경성제대 법과를 졸업하여 영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구사할 줄 알았다. 그는 금강산 신계사에 주석했던 효봉선사의 장조카로 가문과 학벌이 탄탄했다. 포대령은 자유인의 기질을 타고나 어느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았다.

그는 1952년 초겨울 구상 시인과 어느 막걸리집에서 만나 통성명을 하는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끌려 말을 터는 사이가 되었다. 흔히 처녀총각이 와인 한 잔을 앞에 두고 건네는 말 몇 마디가 처음엔 마음이 마음을 당기고 이어 가슴이 가슴을 끌어당기는 인력에 불을 붙인다. 장년의 두 어른들이 바로 그랬나 보다.

오지랖 넓은 구상 시인의 포용력과 양의 동서를 넘나드는 포대령의 구수한 입담에 곁들여 평남 민요 ‘수심가’를 영어버전으로 불러제끼는 노래 실력은 좌중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구상 시인과 술친구가 되고부터 서울서 피난 온 김팔봉, 장덕조, 김광섭 등 내노라하는 문인들까지 한데 어울려 처참하고 암담했던 전쟁통의 고단함과 울분을 씻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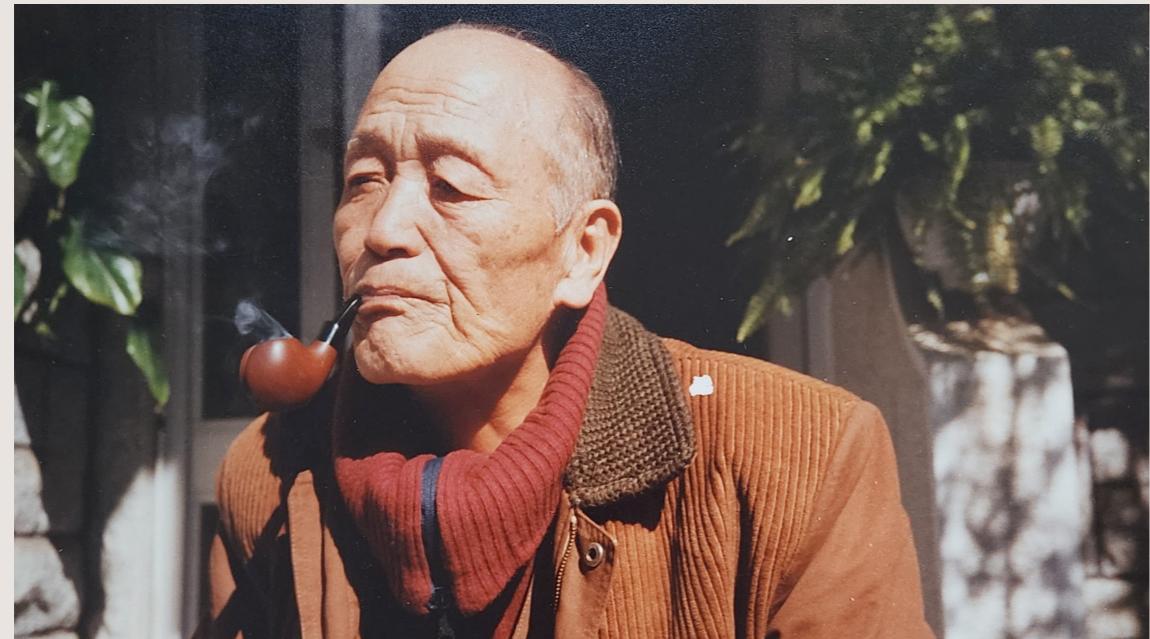
낼 수 있었다.

포대령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질 탓으로 자주 미 고문관과 마찰을 일으켜 강제 전역당하기도 했다. 또 한 번은 1·4후퇴 때 피난민 대열 속에 인민군이 숨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미 고문관이 무차별 포격하자고 졸랐다. “자유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는 우리 동포를 죽이란 말인가” “방어를 위해선 쌌야지” “야, 내가 지휘관이야, 난 너보다 계급도, 나이도, 학벌도 더 높다”며 45구경 권총을 거꾸로 쥐고 철모를 내리쳤다. 다시 재판에 회부됐지만 ‘실형 1개월에 형 집행 정지’라는 판결을 받고 현직을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

깡패 화가 박용주 선생도 구상 시인의 친구였다.



구상 시인



박용주 화가

두 분이 언제부터 교우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름자 뒤에 붙는 깡패와 시인이란 칭호를 서로 바꿔 부르기로 하고 영면에 들 때까지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에 이름을 올렸으나 학업에는 정을 붙이지 못했다. 유도 도장으로 찾아가 “나는 한국의 3단인데 일본의 4단 짜리와 맞붙어 보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가상히 여긴 사범이 일본 학생들과 줄지어 대련을 시켰다. 눈 깜짝할 사이에 엎어치기 한 판으로 제압해 버리자 즉석에서 4단으로 승단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박용주 선생은 ‘와세다 다쓰’(龍)라는 별명으로 이름을 날리게 됐다.

그는 일제 치하의 군 징집을 피하기 위해 호적을 뚱 빼내 가방 속에 넣고 다녔다. 중국으로 건너간 선생은 천진에서 북경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두 사람이 앉아야 하는 좌석을 독차지하고 있는 딩치 큰 이태리 프로 레슬러를 30초 정거하는 플랫폼으로 불러내 역시 엎어치기 한판으로 때려



구상시인과 구활 수필가가 박용주 화가 묘소에서 찍은 사진.

눕혀버렸다.

그 레슬러의 보스톤 백에는 독일의 자존심인 라이카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한국 최초로 라이카를 둘러매고 다닌 사람은 바로 박용주야”라고 으스대곤 했다.

박용주 선생은 일본과 중국을 두루 돌아다닌 후 귀국하여 한때는 서울에 정착하여 명동 일대를 쥐고 흔든 적이 있다. 명동백작이라 불렸던 소설가 이봉구 선생이 쓴 단행본 ‘명동’(삼중당)의 75~77 페이지에 ‘경상도 문동이 박용주’의 이야기가 맛깔스런 음식처럼 실려 있다. 경상도에서 올라왔다는 협객 박용주의 그 억센 사투리는 명동 거리를 쟁쟁 울리고 있었다.

“나는 경상도 문동이다.” 다방이고 술집이고 인사를 나눌 적마다 그 문동이라는 소리를 빼놓지

않았다. 왜정 때 일본 땅에서 학생운동을 했다는 등 유도와 당수가 몇 단이니 칼질을 잘한다는 등 무시무시한가 하면 시를 쓴다고 자작시 원고 뭉치를 들고 다니며 눈을 스르르 감고 상대방을 졸게 하다가는 번개처럼 들러리 친구들을 끌고 나가 술을 떠 벌어지게 내는 기활 좋은 박용주였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박용주는 너털웃음에다 사투리로 명동 거리를 누비고 다녔다.

“나는 문동이다. 나는 시를 쓴다.” 영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술자리를 베푸는 자리엔 이용악, 박성환, 서병곤, 김초향의 얼굴이 보였고 ‘무궁원’에서 알게 된 한하운을 위해 어느 날 밤 한강 백사장에서 술놀이를 마련하는가 하면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아, 나는 정의를 위해 피를 흘리는 경상도 문동이다.” 어쨌든 시원스럽고 날쌔고 입담 좋고 스릴까지 있어서 따분한 것과는 인연이면 사람이었다.

“애, 너 초향이. 그 꽃이 뭐냐.” 조석으로 변하는 김초향의 생활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유행가 가사를 써서 밥을 먹는 그의 생활은 소설의 줄거리 이상으로 변화가 무상했다. 어느 때는 코트고 저고리고 바지고 하루에 하나씩 전당포에 맡기고 속 셔츠 바람으로 고려정 냉면집 앞에서 팔짱을 끼고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자기가 지은 유행가를 흥얼거리는가 하면 마카오 신사 뺨치게 쪽 배 옷차림으로 점잖게 거닐며, “용주 형, 어딜 갔나, 돈이 있을 땐 만날 수가 없으니.”

하루는 초향이 난대 없이 머리를 박박 깎고 나타났다. “감옥을 다녀왔나, 중이 되었나, 삭발을 했으니 이게 웬일이야.” ‘하룻밤 외박을 하고 들어갔더니 여편네가 오입하는 벼룩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가위로 머리를 깎아 버렸어.’ 김초향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에잇 똥물에 뒤겨도 시원치 않을 놈 같으니라고 이런 못난 놈이 있어서 명동을 잡친다니까.”

당대 최고의 주먹이자 정치깡패로 이름을 날린 김두한과 박용주가 한강 백사장에서 한판 불었던 대결 장면은 영화보다 재미있다. 비호같은 박용주가 김두한의 가슴팍을 파고들어 업어치기 한판으로 끝내버렸다.

선생에게 춘화는 밥이고 술이었다. 그가 춘화를 그리게 된 동기는 아주 단순하다. 춘화를 그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나눠주거나 팔면 자존심을 구기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일본 유학 시절이나 귀국 후 전국을 떠도는 낭인 시절에도 항상 그를 따르는 친구와 후배들을 거느리고 다녔다. 이른바 리더였고 어릴 적부터 몸에 익은 대장 기질을 그대로 키워 나간 결과였다. 리더는 돈이 필요했다. 해질녘 목로집에서 대장이 술값을 마련해 오기를 기다리는 후배들을 위해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돈을 얻어오기 위해선 어떤 빌미가 필요했다. 춘화 한두 장이면 서너 명이 막걸리로 목축일 마련은 충분했던 것이다.

그는 다방에 앉아 낱장 춘화를 그렸으며 때론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추석이나 세밑에는 스케치북에 체계를 갖춘 테마 춘화를 그려 미리 점찍어 둔 사람에게 선물하고 그 대가를 받아오곤 했다. 대구의 K호텔 사장이 수시로 지원해 주었으며 선생은 고마움의 표시로 정성 들여 그린 춘화를 선물했다. 즐겨 그리는 테마는 신부와 수녀, 스님과 여인 등이며 소도구로는 목탁과 염주, 그리고 묵주가 등장하여 그것들이 ‘팽마구 치익 칙…’ 팽가리를 치며 박자를 맞추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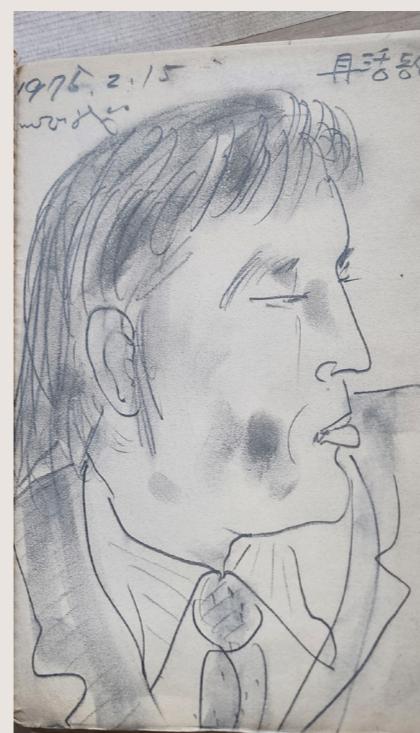
선생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풍이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다리를 끌면서 다녔다. 그는 이런 형편으로 오래 못 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지 소장하고 있던 그림과 춘화 600여 점을 불사라 버렸으며 일부는 평소 그를 좋아하는 친지들에게 한두 점씩 나눠 주었다.

선생은 1915년 2월 7일에 태어나 73세인 1988년 5월 7일 타계했다. 선생은 삼일장으로 칠곡 지천의 청구공원 묘원에 묻혔다. 돌아가시기 보름 전쯤 “구상 시인이 언제 온다는 소식이 없더나”라고 내게 물어 온 적이 있었다. 묘소는 청구공원 묘원 중심부 도로에서 가까운 정 남향에 자리 잡고 있다.

구상 시인은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혼자 내려오셨다. 묘소에서 간단하게 예를 치렸다. 구상 시

인은 술 한 잔을 무덤에 부으면서 “용주 형! 깡패 칭호는 나에게 물려주고 시인 칭호는 당신이 갖고 가시더니 왜 이렇게 잔디 이불을 덮고 계시오” 라며 손수건을 눈에 갖다 대고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이승의 마지막은 내가 스스로 정한다. 노란색 물감을 화선지 위에 가득 풀어 놓은 다음 청산가리를 마시고 붉은 피를 쏟아 마지막 작품을 만들고 죽을 거야.” 선생은 소원한 대로 마지막 걸작은 남기지 못하고 떠나셨다. 그렇지만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에서 값비싸기로 소문난 미국의 잭슨 폴락의 아름다운 추상화보다 더 멋진 그림을 그려 주고 가셨다. 그 그림들은 ‘절규’ 또는 ‘참회’라는 이름을 붙여도 좋을 명화들이었다.



박용주 화가가  
구할 수필가의 얼굴을 스케치한 작품.

# 포도밭의 기적 일구는 대구수성알파시티



**‘포도밭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구수성알파시티 전경. 이곳은 대구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바꿀 국가디지털혁신거점이자 글로벌 AX 연구 허브로의 변신과 도약을 준비 중이다.**

(대구시 제공)



오경묵 \_ 한국경제신문 기자

대구시 수성구 시지방면을 지나다보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설계된 비즈니스 빌딩이 밀집한 타운을 만날 수 있다. 2008년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4년부터 본격 조성된 대구 SW(소프트웨어) 융합산업의 거점인 대구수성알파시티다. 수성구 대흥·삼덕·시지·노변동 일원 약 100만㎡ 부지에 조성된 이곳에는 최근 10년간 소프트웨어 기업 283개사가 입주하면서 4525명의 전문직들이 일하는 비즈니스 지구로 변모했다.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과 SW융합기술지원센터, SW융합테크비즈센터, 산학혁신센터(스마트시티센터), 스포츠산업지원센터, 민간 지식산업지원센터(태왕) 등 20여개 기업지원시설도 들어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소프트웨어와 IT산업 역량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인정하는 곳이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면서 ABB(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시가 판교 이남 최대의 국가 디지털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다.

대구수성알파시티는 과거 포도밭이었다. 본격 개발이 예고됐던 2000년대 초만 해도 시민들이 포도밭에서 수확 체험을 하는 곳으로 더 친숙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수성알파시티의 최근 변화를 대구 SW 업계에서는 ‘포도밭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아직 포도밭의 기적은 미완의 상태다. 기업과 지원기관 연구소 등이 입주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디지털혁신지구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31일 수성알파시티에서 디지털혁신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는 글로벌 AX(AI전환) 연구허브라는 국책사업에 아직 최종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테크기업과 세계 각국이 AI시대 패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투자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와 글로벌 AX 연구 허브 사업에 대한 ‘알파인’들의 기대와 염원이 크다.

## 200개 기업 집적하며 매출 1조원 돌파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의 외형은 최근 크게 성장했다. 2019년 44개 기업(354명)의 매출은 822억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말 243개 기업 (4525명)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매출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들 기업이 활동하는 SW 분야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정보보안), 자율주행, 무인 이동체 등 다양하다. 특히 다른 산업들과 융합 서비스를 내놓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더욱 기대를 키우고 있다.

판교 이남에서 민간 위주로 이처럼 특정 클러스터를 형성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구디지털 혁신진흥원의 임정택 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권역별 AX거점 조성과 관련해 대구를 AX연구개발 허브로, 광주를 AX실증밸리로 특정한 것은 대구 수성알파시티와 대구 SW산업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라고 말했다.

## 글로벌 빅테크 잠재력 보이는 대구의 기업들

수성알파시티가 최근 4년 새 이처럼 비약적 발전을 한 것은 대구 소프트웨어 분야 기업들의 잠재력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과 모빌리티에 AI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융합해 고성장하는 앵커 기업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

세계 최초로 무선로봇 자동 툴 체인저를 개발한 유엔디는 세계 로봇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스위치 마그네틱 기술을 로봇에 적용한 게 핵심 기술이다. 로봇의 손에 해당하는 마그네틱 그리퍼는 로봇이 산업 현장의 툴이나 요리 도구를 1초 안에 탈부착할 수 있다. 이철수 유엔디 대표는 “로봇 한 대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크게 확장해 로봇을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디는 대기업 스마트팩토리는 물론이고 물류, 푸드테크 등 서비스 기업에서도 주문이 급증해 2020년 21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10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무지개연구소는 새로 개발한 반도체 칩과 온디바이스 AI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모빌리티 업체로 변신한 대표기업이다. 2015년 창업한 이 회사는 드론용 SW만 생산하다가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두뇌컴퓨터(IMC)와 보드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의 IMC는 600만원, 제어 SW를 장착한 드론은 3000만~6000만 원에 달하는 고부가제품이다. 김용덕 무지개연구소 대표는 “AI 반도체와 SW 통신 기능을 융합해 자율 비행 드론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말했다. 2020년 6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61억원으로 10배 급증했다.

자체 개발한 3차원(3D) 지리정보시스템(GIS) 엔진을 기반으로 웹과 모바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성장한 이지스(대표 김성호)는 24년간 디지털 트윈 한 우물만 판 기업으로 서비스를 12개국에 수출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의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 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등 국가 GIS 사업의 앵커 기업으로 성장했다. 상장을 추진 중인 이 회사는 2022년 118억원이던 매출이 2023년 214억원, 지난해 335억원으로 매년 1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수성알파시티내 기업은 아니지만 2021년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부생들이 창업한 유니바(대표 남명진)는 자연어처리기술을 기반으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자체 개발했다. 유니바 LLM은 7B(모델 크기) 이하 언어모델 중 국내 1위다. 지난해 10월 교육기업 D사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에 참여하는 등 공공·민간의 AI모델 수주가 잇따르고 있다. 창업 첫 해 5000만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10억원을 기록하고 올해 매출이 2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

이다. 남 대표는 “AI 튜터 등 교육 서비스는 물론 키오스크 음성인식챗봇 등 문자, 음성, 그림, 영상을 포괄하는 멀티모달 언어모델로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처럼 AI와 SW 융합으로 매출이 10배 이상 오르는 등 고성장(스케일업)하는 기업이 집적하면서 민선 8기 대구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을 ABB 산업으로 둑어 대구의 5대 미래산업군에 포함시켰다. ABB 중심의 디지털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다른 예산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이 분야만큼은 투자를 크게 높여 많은 기업이 대구로 모이고 있다.

## AX 글로벌 연구허브 국책사업 추진하는 대구

세계적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개발이나 산업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첨단 기술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 대구의 AX글로벌연구허브 사업이다. 국가디지털혁신지구의 내용이 AX로 구체화 된 사업이다. AX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와 서비스·상품의 개발, 기존 산업의 AI전환을 대구가 가장 빠르게 시도하면서 대구 산업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빅프로젝트인 셈이다. 이 글로벌 연구허브를 중심으로 대구의 로봇, UAM 등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비메모리 반도체 등 5대 산업을 함께 육성한다는 계획이 글로벌 AX 연구허브의 핵심 내용이다.

이 같은 계획은 홍 시장 취임 이후 본격화했다. 홍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31일 수성알파시티에서 2조원대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협약을 맺고 디지털혁신비전을 선포했다.

이런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구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수성알파시티를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가디지털혁신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는 IBM, 하버드의과대, 스탠퍼드대 등 14개 해외기관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참여의향서도 확보한 상태다.

글로벌 연구를 위한 국내 대학의 연구거점도 수성알파시티에 늘어나고 있다. DGIST는 국가 디지털혁신지구에 글로벌캠퍼스를 구축하고 있다. AI, SW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역기업 협력 연구, 국제공동연구소 운영 등을 위해서다. 8000억원 규모로 투자할 예정인 SK AI데이터센터도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 디지털산업의 남방한계선을 대구까지 남하시켜 지방에도 국가의 디지털혁신거점을 마련해 빅테크 기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하게 한다는 야심 찬 목표 아래 기업, 대학, 연구소, 데이터센터 등이 속속 모이고 있다. 대구시는 2030년까지 글로벌 AX연구허브에 1000개의 기업, 2만 명의 디지털인재가 상주하는 AI 밸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3년 12월 4일 윤풍영 SKC&C 사장, 신도철 SK리츠운용대표 등과 대구 수성알파시티 ABB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협력 협약식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대한민국 산업 재편 성공모델 되나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하면 홍 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대한민국 산업 재편’의 첫 성공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을 군위·의성에 조성하고 일대에 에어시티와 첨단산업 단지를 만들어 대한민국 산업재편을 이루겠다는 계획이지만 신공항 개항 전에라도 디지털혁신거점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재편의 모델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 꿈이 대구수성알파시티에서 ‘포도 넝쿨처럼’ 익어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글로벌AX연구 허브 지정은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 협의는 마친 상태로 마지막 관문인 예타면제를 위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상태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정이 정상화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상반기 내에 예타면제를 확정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ABB 개미군단 빅테크로 성장 기대

글로벌 AX 연구 허브가 본격화하면 수성알파시티에 집적한 'ABB 개미군단'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세계 유명 대학의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개발에 나서면서 AI 혁신의 세계적인 클러스터가 탄생할 것으로 업계와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다.

수성알파시티내 A사는 현재 AI 기반 영상 정보보안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며, 실시간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온 기업이다. 그러나 AI 모델 경량화 및 실시간 데이터 분석 최적화 기술이 부족해, 고도화된 AX 솔루션으로 확장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경량화된 AI 모델과 초고속 영상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산업 자동화 등의 AX 솔루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특히, 수성알파시티 내 글로벌 AX R&D 연구소가 구축되면,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율주행 로봇 및 도시 안전 AI 기술도 고도화할 수 있다.

예를들어 A사는 VLM(Vision-Language Model) 기반 경량화 AI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자율주행 로봇과 도시 안전 관리 솔루션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산불 감지, 군중 밀집 예방, 산업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X 솔루션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다는 것이 DIP의 전망이다.

지역 전통기업인 B사는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를 만들던 회사였으나 2020년에 '미래농업 리딩기업'을 비전으로 선포한 후 무인 농기계와 드론, 스마트팜에 더해 농업 로봇 개발을 추진하여 한국의 존디어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에서 레벨 3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 성공으로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자율작업 기술, 모듈러 플랫폼, AI 작업 기술의 역량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수성알파시티가 'AX 연구개발 허브'로 지정되면 지역산업의 AX를 촉진하고 지역 전통기업이 글로벌 AX 전문기업으로 퀸텀 점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B사는 현재 농업 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제품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나, 정밀 자율주행 및 작업 자동화 기술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농경지는 지형이 불규칙하고 장애물이 존재하며, 계절이나 날씨 변화에 따라 환경이 급변한다. 현재의 자율주행 기술은 도심 또는 산업현장의 정형화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어 농경지와 같은 비정형 환경에서는 정확도가 크게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농업은 작업방식, 환경변화, 작물 다양성 등 다양한 변수를 가지기 때문에 완전 무인화 실현을 위한 AI 기반 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평가된다. 농업 전주기 정밀농업 무인화를 위한 자율작업 제어 기술, 모듈러 플랫폼 통합 기술 등 AI 기반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다.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농기계의 완전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AI 기반 플랫폼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성알파시티 내 글로벌 AX R&D 연구소가 구축되면,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정밀농업 무인화를 위한 AI 기술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다.

글로벌 연구팀과의 협력을 통해, 이 회사는 연합지능 기반 행동지능 생성형 AI 기술을 확보하고, 농업용 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역량을 레벨3에서 레벨4(운전자개입 無)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X 융합기술이 밭과 논에 스며들 때, 단순한 효율의 극대화가 아니라,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진화시키는 게임체인저도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경현 대구시 미래혁신정책관은 "지방 IT나 소프트웨어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연구인력인데 이들이 판교 이남으로 잘 내려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지방에 잘 오려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글로벌 AX 연구 허브가 지정돼 세계 유수의 대학과 연구진이 우리 기업과 공동연구를 하게 되면 이런 인력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정책관은 "글로벌 AX 허브 사업의 예타통과를 이뤄낸다면 대구가 한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클러스터화 할 수 있다"며 "글로벌 AX 연구 허브 지정을 위해 'ABB 개미군단'의 내적 역량을 더욱 키워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남평문씨 인홍세거지의 '三相미학'(중)



음양 대대(對待) 명당이자 사역(四域) 명당인 인홍세거지 가상(家相) 경관 전경.



이동일\_경북환경연수원 객원교수·풍수학박사

지난해 가을 나는 한국을 방문한 미국인 지인과 인홍세거지 입구의 은행나무 밑 벤치에 앉아 있었다. 우리나라의 옛 한옥을 구경하고 싶다기에 인홍을 찾은 것이었다. 은행잎은 물론 들녘의 벼와 감나무의 감이 온통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사위(四圍)는 적막감이 돌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오랜만에 보는 목가적인 풍경이라며 “원더풀!”을 연발했다.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감을 보고 있던 필자의 머릿속에 갑자기 펼벽 여사의 일화가 떠올랐다. 1960년 가을에 한국을 방문했던 그녀는, 시골집 마당의 감나무 끝에 달려있는 열댓 개의 감이 겨울새를 위해 남겨둔 까치밥이라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또 들에서 농사일을 끝낸 농부가, 소가 힘들다고 달구지를 타지 않고 벗단을 지게에 짊어지고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놀랐다고 한다. 나는 그 일화를 지인에게 소개하면서, 그런 행태(行態)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인의 생태학적 미학정신’이라고 말했다.

세거지 안의 광거당(廣居堂)에 들렀을 때는 대문 입구에 놓여 있는 차면담(遮面牆)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는 담장에 새겨져 있는 꽃무늬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했다. 필자도 일단 맞장구를 쳐주는 한편, 조선시대 양반가의 그 같은 담이 시야 차단을 위한 일종의 비보물(裨補物)이며, 그 외에도 ‘헛담’과 ‘내외담’ 같은, 기능은 비슷하지만 이름은 다른 담들이 더 있다고 설명했다.

필자가 이런 경험을 얘기하는 목적은 집 담장과 수목들이 가상(家相 또는 陽宅)의 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가상이 건물의 겉모양뿐만 아니라 건물의 내부 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건물 안팎으로 배치돼 있는 현판과 수목 같은 모든 시설물과 정원, 담장, 그리고 이웃 건물 및 주변 자연과의 상대적 관련성 등을 모두 아우르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라는 것을 어찌 필자가 모를 리 있겠는가.

인홍세거지처럼 집의 외양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입지와 공간 구성에 풍수와 유불

선(儒佛仙) 같은 다양한 철학이 영향을 끼친 곳에서는, 필자의 지인처럼 대상물의 겉모습만 보려할 게 아니라 그 철학적 바탕 세계까지 알려고 노력하는 관광 행태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필자와 지인 간의 ‘보는 안목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것이다.

‘본다’는 것은 지각(知覺, perception) 심리학과 관계있고, ‘안다’는 것은 인지(認知, cognition) 심리학과 관계있다. 사람의 감각을 통한 ‘봄’은 환경심리적 형식미학이요, 대상의 의미 및 상징성에 대한 ‘앎’은 인문학적 내용미학이다. 눈으로 직접 보는 즉각적인 미적 체험은 신체적 힐링에 도움이 되고, 머릿속에 이미 저장돼 있는 장소 정보와 철학 같은 인지력(認知力)을 바탕으로 하는 미적 체험은 정신적 힐링에 도움이 된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할 때의 ‘아는 만큼’이 바로 그 인지력이다.

어떤 장소에 담지돼 있는 역사성이나 철학의 세계를 미리 조금이라도 안 후에 그곳을 찾게 된다면 시각적인 보는 즐거움 이상의 정신적·심미적 경지를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필자가 인홍세거지 가상경관(家相景觀)의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보는 방법과 더불어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각종 철학적·인지적 상징미학의 세계를 밝히는 소이(所以)이다.

## 눈으로 보는

### 家相경관의 감각적 미학 세계



남평문씨 인홍세거지는 대구시 민속자료 제3호다. 고졸미(古拙美) 넘치는 한옥들, 상춘객을 불러 모으는 500여 그루의 매화나무, 사진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한여름 흙돌담 위의 능소화와 인홍원(仁興園)의 연꽃, 그리고 국내 최대의 문중도서관인 인수문고(仁壽文庫)와 중곡서고(中谷書庫)에 보관돼 있는 2만5천여 권의 책 등등, 참으로 볼거리가 많은 곳이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내·외국인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인홍세거지의 가상은 지상보다 빼어나다(地相不如家相). 세거지 안에 아홉 가구밖에 없지만 집집마다 본채 외에 여러 동(棟)의 별채를 가지고 있어서 두 개의 재사(齋舍, 정자)와 인수문고·경내의 건물들, 그리고 관리사옥까지 합치면 모두 60여 동에 달한다. 그런데 그 많은 한옥들이 우물 정(井)자형으로 구획된 집터 위에, 2m가 넘는 높이로 수십 미터씩 곧게 뻗어 있는 흙돌담 안에 군집해 있어서 마치 한 올 안에 들어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정남향하고 있는 광거당(廣居堂)과 북서향하고 있는 인수문고 건물을 제외한 모든 집의 본채[안채]들은 남서향[艮坐坤向]으로 앉아 있으며, 집집마다 온갖 나무와 꽃, 텃밭 등으로 된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고 있다. 그런 품격 높은 한옥을 대상으로 패월[나침반]을 들고 대문·안방·부엌의 놓인 방위를 동사택(東四宅)·서사택(西四宅)으로 나누어 측정하고 그



시각적 미감(美感)을 촉발하는 인홍세거지의 흙돌담과 능소화

길흉을 운운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될 성싶다. 전통 양택론에 입각한 집의 방위론적 길흉해석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오감(五感)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한옥과 정원의 아름다움을 폐부 깊숙이 느껴보는 것이 그 공간에 대한 예의일 듯하다.

인홍세거지의 감각적 미학 세계를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세거지 안으로 곧장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 밑 벤치나 또는 인홍원에 면춰 서서 주산(主山)인 천수봉을 배경으로 다양한 수목들과 어우러져 있는 한옥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비온 후나 이른 아침 물안개가 낀 때 그 아름다움은 거의 선경을 방불케 한다. 골목 안으로 들어간 뒤에는 한옥들이 향하고 있는, 세거지 앞쪽에 놓여 있는 산들을 바라보는 게 좋다. 물결치듯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까치봉 줄기와 그 너머로 조망되는 정상부가 편평한, 마치 ‘말 안장’ 같은 함박산이 차분하면서도 안정된 미적 감각을 선사해 준다.

광거당에 들렀을 때는 누마루에 올라 담 너머로 펼쳐지는 풍광을 바라보는 게 효과적이다. 파란 하늘에 금을 긋고 있는 반원형의 부드러운 산봉우리들이 말 그대로 한 폭의 수채



풍수와 유불도 철학이 반영돼 있는 인홍세거지의 가상(家相) 공간 구성과 배치

화다. ‘사는 사람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참된 집이란 바로 이런 멋진 차경(借景)을 갖춘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사람이 만든 집이 쉘터로서의 단순한 물리적 공간 기능을 넘어 사람의 감성과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다시 만들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둘째는, 개개 한옥의 내부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한데 모여 보여주는 군집미(群集美)를 반드시 보라는 것이다. 인홍세거지의 기와집들은 한 채 한 채가 모두 아름답다. 하지만 60여 채가 이루는 조화로우면서도 통일된 군집미는 그것을 훨씬 능가한다. 광거당 뒤쪽 구릉 위에서 세거지 전체를 한번 조망해보라. 겹쳐 보이는 한옥의 팔작지붕 처마 곡선들의 맵시가 마치 한 무리의 새떼가 허공을 훨훨 날며 날갯짓하고 있는 듯하다.

셋째는, 한옥은 한옥끼리, 정원은 정원끼리, 나무는 나무끼리, 꽃은 꽃끼리 서로 대응시켜 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느껴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심미안을 기르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사유(思惟)하는 철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수백당에서는 남성 같은 장중함을, 광거당에서는 여성 같은 섬세함을

느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수백당은 양(陽)적인 석가탑, 광거당은 음(陰)적인 다보탑에 비정(比定)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곧 시각적인 감각이 음양철학적인 사유 모드로 이미 전환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인홍세거지를 찾는 사람들은 팔작지붕과 맞배지붕, 이광원(彝光園)과 인홍원, 회화나무와 소나무, 능소화와 연꽃처럼 동류의 대상물들 간의 아름다움[美]을 비교 음미하면서 그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담론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길 바란다.

넷째는, 평소에 보기 힘든 솟을대문의 빗장둔테와 현판 글씨, 그리고 주련(柱聯, 기둥에 써놓은 글귀) 같은 대상물들을 세거지 안에서 만났을 때는, 그 크기나 모습에 상관없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감탄하는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다. 특히 봉창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방 안에 한껏 신비로운 기운을 감돌게 하고 있는 고택에서는 눈으로 보는 차원을 넘어 온몸과 마음을 그 분위기에 내맡겨 보는 게 좋다. 그것이 바로 그 집의 장소흔(魂)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매화나 능소화 같은 꽃을 보기 위해 인홍세거지를 방문했을 때는 그 꽃들을 그냥 스쳐지나가듯 대충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온 정신을 모아 꽃눈과 꽃술, 꽃잎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꽃과 나무가 지닌 생명력[ 숨결 ]을 느껴보도록 해야 한다. 온 우주 안에 퍼져 있는 그런 생명체들과 내가 ‘함께 살아있음’을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리나라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몸속에서 다양한 엔도르핀이 생성되고 기분도 업(up) 된다. 사람마다 미적인 감각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디를 가든 오감을 깨우는 노력만 한다면, 그 여행은 단순한 ‘시간 죽이기’ 여행이 아닌 진짜 실속 있는 ‘심신 헐링’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철학으로 읽는 家相경관의 상징미학 세계



건축 전문가들이 서울의 종묘(宗廟)를 보고 절대 미학을 느낀다지만, 나는 인홍세거지를 통해 한옥의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더불어 거기에 깃들어 있는 풍수적 음양오행철학과 유불도[유불선] 철학, 그리고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까지 아우르는,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美를 맛본다. 이 땅 안의 그 어떤 세거지, 그 어떤 마을 경관이 과연 21세기 ‘고향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주 안에서 거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토록 명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인홍세거지 가상[주거] 공간을 철학적으로 읽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집의 구조와 배치 같은 가상경관 구축에 영향을 준 철학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개개의 철학이 주거경

관에 공간적으로 어떻게 반영돼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철학의 융합을 통해 인홍세거지의 새로운 장소성과 상징미학의 세계를 발견해내는 일이다. 먼저 인홍세거지 경관 형성에 영향을 준 철학을 풍수철학, 유가(儒家)철학, 불가(佛家)철학, 도가(道家 또는 仙家)철학 순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유불도 사상을 교(教)로 칭하지 않고 가(家)로 칭한 것은 그들 사상을 종교가 아닌 학문적 영역 안에서 다루기 위함임을 미리 밝혀둔다.

인홍세거지 가상공간의 입지 및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철학은 풍수다. 터 잡기에서부터 혈(穴)자리 찾기, 좌향 정하기, 사신사(四神砂)적 건물 구축, 높은 담장 쌓기 등이 모두 풍수를 바탕으로 했다. 인홍세거지 터에는 본래 옛 인홍사가 있었다. 군위 인각사 보각국사비문에, ‘이 절[인홍사]이 창건한지 이미 오래되어 전당(殿堂)이 퇴락했을 뿐 아니라, 지반도 내려앉고, 너무 비좁아서 중수(重修)하거나 새로 지어 확장하게 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일연스님이 인홍사의 주지였을 때 극락전은 지금의 수백당 자리, 즉 현재의 세거지 안에서도 지대가 다소 낮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개기조(開基祖)인 인산재(仁山齋) 문경호(文敬鎬)가 1872년에 이 극락전 옛터에서 주산인 천수봉 쪽으로 수십 미터 물러난 자리에 살림집을 지은 것은, ‘높은 산 밑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집을 짓고, 나지막한 산 밑에서는 산자락에 바짝 붙여 집을 짓는다’는, 양택 입지 원리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풍수 순응美는 집의 좌향 결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광거당은 둥그런 모양의 부봉(富峯, 까치봉)을 향해 정남향을 취하고 있고, 대부분 가옥의 본채[안채]는 ‘말 안장’형 귀봉(貴峯, 힘박산)을 향해 남서향[艮坐坤向]으로 앉아 있다. 모두 절대향이 아닌 상대향이다. 광거당은 천수봉 왼쪽으로 뻗어 내린 둔덕 모양의 지맥 끝자락에 기대어 입지해 있는데, 남쪽을 제외한 북·동·서쪽 담장 밖에 빙 둘러 소나무를 심어 놓았다. 지맥(地脈)을 비보함과 아울러 담장과 더불어 이중(二重)으로 혈을 보호해주는 사신사(四神砂)적 장치를 해놓은 셈이다.

사신사적 공간 구축은 인수문과 경역의 건물 배치와, 세거지 전체에 2m 이상으로 높게 쌓아 놓은 흙돌담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인수문과 경역의 주건물은 아홉 가구 살림집의 본채처럼 남서향하고 있는 거경서사(居敬書舍)가 아니라 북서향하고 있는 인수문과 건물이다.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바깥을 사방으로 두르고 있는 담장이 외(外)사신사 격(格)이고, 그 안에 놓인 왼쪽의 중곡서고(中谷書庫)는 내청룡, 오른쪽의 거경서사는 내백호, 앞쪽에 놓인 유예문(遊藝門)은 전주작(前朱雀)이 되는 것이다.

인홍세거지의 담장은 무척 높다. 그것을 양반 가옥의 한 상징적인 형태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인홍세거지를 보듬은 천수봉이 좌청룡·우백호 지맥을 길게 뻗어 내리지 못했다는 데 있다. 세거지 터가 좌우로 열려 있다 보니 우측 수구(水

口) 방향에서 겨울철에 매서운 북서풍이 불어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우백호 역할을 하는 소나무 비보숲이 방풍 역할을 해주겠지만, 그게 원활치 않을 것에 대비해 높은 담을 쌓아 가옥 내부의 기운[온도]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 것이다. 이중으로 된 광거당 사신사처럼 세거지 공간 전체에 대해서도 비보 소나무숲과 높은 담장으로 된 두 겹의 명당 보호사(砂)를 갖추고자 했던 셈이다.

인홍세거지의 가상 배치와 구성에 영향을 준 두 번째 사상은 유가(儒家) 철학이다. 유가의 철학적 공간미는 한마디로 위계질서美다. 인홍세거지는 혈 자리에 터를 잡은 죽현(竹軒) 종택을 중심으로 하여 전후좌우로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춘 공간구조를 보인다. 후상전하(後上前下) 원리에 따라 세거지의 가장 뒤쪽에 종택이 자리 잡고, 좌상우하(左上右下) 원리에 따라 종택의 원편은 밭으로 비워두고, 오른편에 아랫대(代)의 약산가(藥山家)를 입지시켰다. 종택과 약산가가 나란히 놓여 있는 것 같지만 종택의 뒷담이 약산가의 뒷담보다 주산인 천수봉 쪽으로 약간 더 튀어나와 있어서, 세거지 전체의 주인되는 혈자리가 바로 종택이 터 잡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다.

유가의 종법(宗法) 질서 체계는 대문을 내는 방향과 당호 설정에도 반영되었다. 직선형 골목 밖에서 대문이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집은 종가인 문정기 가옥[죽현종택]뿐이다. 마을 중심부의 맨 뒤에 위치해 남서향으로 대문을 냈는데 세거지 안에서 유일하게 ‘죽현종택’이라고 쓴 커다란 현판이 솟을대문에 위풍당당하게 걸려있다. 그 다음 대(代)인 수봉고택과 보당고택은 골목에서 조금 끊어 들어가서 대문을 남서향으로 냈고, 또 그 아랫대의 집들은 대부분 골목과 평행하게 대문을 냈다. 한 집안사람들이지만 대(代)에 따라 대문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냈으로써 유가적 위계질서를 공간적으로도 엄격하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9채의 살림집 당호들도 위계성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제일 큰집은 ‘종택(宗宅)’, 그 다음 큰집은 ‘고택(古宅)’, 나머지 집은 전부 ‘가(家)’라는 호칭이 붙여졌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죽현종택과 수봉고택·보당고택, 그리고 약산가·유당가·혁채가·현채가·탄당가·춘강가다. 광거당과 수백당이라는 당호 또한 유가풍이다. ‘광거’는 『맹자』「등문공장구하(瞻文公章句下)」의 ‘(대장부란) 천하의 넓은 집에 살고(居天下之廣居)’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며, ‘결백을 지키는 집’이라는 뜻을 지닌 수백당(守白堂)은 수봉(壽峰) 문영박(文永樸)의 또 다른 아호이기도 하다. 광거당과 수백당에는 집 주인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는 주련도 있는데, 중요한 의경물(意景物)로서 양반가다운 가상 품격을 느끼게 해준다.

인홍세거지 가상에 배어 있는 세 번째 사상은 불가(佛家) 철학이다. 불가 철학은 현재 천수봉이라는 뒷산 이름과 세거지 전면에 남아있는 옛 인홍사 삼층석탑에 반영돼 있다. 천수봉이라 할 때의 천수(千壽)는 무량수(無量壽)를 뜻하고, 또 그 산 밑에 있는 터는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정토와도 같으니 예토[속세]와 정토[극락]가 같다고 보는, 일종의 진속불이 (眞俗不二) 정신의 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절집의 탑은 부처의 진신사리를 보관한 무덤[음택]을 뜻하는데, 그런 탑이 가옥[양택]들과 함께 현재 인홍세거지 안에 공존한다는 것은 곧 불교적 생사불이(生死不二)의 미가 현시(顯示)되고 있는 것으로 상징미학화될 수 있어 보인다.

인홍세거지 가상 공간구성에 반영돼 있는 네 번째 철학은 도가(道家) 철학이다. 수백당 앞 마당에 조성돼 있는 이광원(彝光園)과, 2016년 4월에 세거지 입구에 새로이 조성된 인홍원에서 우리는 도가적 탈속신선미(神仙美)를 느낄 수 있다. 이 두 정원은 대자연을 주거환경 속으로 끌어들여 하나의 소우주를 만들고자 했던 옛 도가적(道家的) 자연관을 전승한 것으로서, 둘 다 『열자(列子)』에 나오는 ‘오신산(五神山) 전설’과 연관돼 있다.

전설의 내용인즉, “발해(渤海)의 동쪽 수역만 리 저쪽에 오신산이 있는데, 주옥(珠玉)으로 된 나무가 우거져 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불로불사(不老不死)한다고 한다. 오신산은 본래 큰 거북의 등에 업혀 있었는데, 뒤에 두 산은 훌러가 버리고 삼신산만 남았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광원 마당 한가운데에 거북 문양이 새겨진 자그마한 돌이 소나무 두 그루가 심어진 산을 업고 있고, 담장 밖 인홍원에는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 영주산(瀛州山)을 상징하는 세 개의 섬이 조성돼 있다. 인홍세거지 가상공간에 함축돼 있는 인문학적 상징미학의 해석 세계는 이토록 깊고도 넓다.

자, 이제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들의 융합을 통해서 필자가 새롭게 발견해낸 인홍세거지 가상경관의 새로운 장소흔(魂)과 상징미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첫째는, 세거지 전체가 우주 대자연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풍수적 음양대대미(對待美)이다. 대대(對待)란 일반적으로 남(양)-여(음), 낮(양)-밤(음)처럼 ‘쌍방이 서로 마주 섬’을 의미한다. 그러나 풍수에서 말하는 하늘(양)-땅(음), 산(양)-물(음), 집(양)-마당(음) 등은 그런 단순한 자의(字義)를 넘어, 둘[음·양] 간의 ‘기운이 통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인홍세거지는 근년에 관광객들을 위해 골목길을 대부분 시멘트로 포장했지만 집 마당은 여전히 전부 맨땅이다. 마당은 하늘의 태양 기운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땅 기운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생명력 넘치는 흙으로 돼있다. 풍수 고전인 『청오경(青烏經)』에서도 ‘음양이 부합하고 천지가 서로 통할 때 땅 기운은 안에서 생명을 짹 틔웠고 하늘 기운은 밖에서 형상을 이루었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의지하는 곳에 풍수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것은 필자가 양자(量子)풍수학을 창시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던 경구(警句)다.

내가 가장 부러워하는 인홍세거지의 가상 요소가 바로 이 맨땅과 잔디로 돼있는 마당이

다. 하늘은 전 세계적으로 초당 70~100개, 하루 800만여 회의 번개를 쳐서 이 지구에 끊임없이 음전자를 공급해 주고 있다. 손으로 흙을 만지거나 또는 맨발을 땅에 대면 하나의 거대한 음전자 배터리와도 같은 지구표면으로 우리 몸속에 과잉 축적돼 있는 양전자가 빠져나가게 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 요즘 맨발걷기[어싱]를 할 장소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홍세거지의 경우는 굳이 집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집 마당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그 밑에서 맨발을 땅에 대고 신문을 읽거나 식사를 하면 충분히 어싱[접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맨땅에 맨손과 맨발을 댄다는 것은 곧 동양 고래의 천지인 합일 사상을 철학적으로 시현하는 행위인 동시에, 필자가 동양 풍수와 서양 양자물리학을 융합해 만든 양자풍수학의 논리를 실생활에서 과학적으로 응용하고 있는 행태에 다름 아니다.

인홍세거지는 하늘과 땅 간의 그런 수직적인 음양 교통(交通)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기(氣) 교환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다. 배산임수 명당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천내천[인홍천]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밤에는 세거지 뒤에 있는 천수봉에서 산바람이 불어 내려 음양론적 기운 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더구나 그런 자연 기운의 흐름과 일치되게 집의 좌향을 남서향으로 앉혔기 때문에 모든 제택(第宅)들이 바람[공기]이 잘 순환되는 생기 넘치는 집이 된 것이다.

둘째는, 인홍세거지의 새로운 철학적 공간 중심축 발견이다. 전통마을은 대개 주산[뒷산]~종가~일반가~하천~안산[앞산]~조산(朝山)으로 이어지는 선을 풍수적 중심축으로 삼는다. 인홍세거지의 경우도 천수봉~죽현종택~작은집들~천내천~까치봉 산줄기~함박산으로 이어지는 축이 중심축이다. 그런데 인홍세거지에는 종택을 중심으로 설정되는 그런 공간축 외에 중심축으로 삼을 만한 축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수봉 문영박의 수봉고택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축이다. 문영박은 천수봉에서 아호를 따왔으며, 수봉고택에서 살았고, 사후에 세거지에서 바라보이는 조산격의 함박산에 묻혔다. 후일 그의 자식들(5형제)이 수봉정사[수백당]를 지어 그를 추모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천수봉~수봉고택~수봉정사[수백당]~수봉 선생 유택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천수봉은 불가직 산 이름이요, 수봉고택과 수봉정사는 유가적 집 이름이며, 수백당 내의 이광원은 도가적 정원이요, 함박산 수봉 선생 묘지는 풍수적 음택(陰宅)이다. 유불도와 풍수라는 네 개의 동양철학이 모두 이 중심축과 인연을 맺고 있다. 이 세상에 왔다 간 한 사람의 실존공간 이력서로서, 나는 이 나라, 아니 세계 그 어디에서도 이토록 빼어난 철학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축을 본 적이 없다. 인홍세거지의 또 다른 숨겨진 공간 철학적 보물임이 분명하다.

셋째는, 인홍세거지의 ‘주거 명당 철학’과 서양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주장한 ‘사역(四域) 거주환경 철학’ 간의 만남과 융합이다. 하이데거가 말한 사역이란 ‘대지’와 ‘하늘’, ‘죽을 자들[사람 또는 인간]’과 ‘신적인 자들[자연지물이든 문화유산이든 그곳 거주자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 존재물]’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거울이 서로를 비추듯 조응하며 어울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홍세거지의 명당환경은 사역환경 성립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인홍세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죽을 자들]은 바람을 막아주는 천수봉 아래 천내천을 바라보는 곳에서[대지] 태양을 바라보며[하늘], 자신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맑은 산천 경개 속의 자연지물 및 조상이 물려준 문화적 유산들[신적인 자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매우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좋은 집이란 이같이 인간의 삶의 근본 요소, 즉 대지와 하늘, 신과 인간의 사역이 잘 응축되어 있는 집으로서, 땅과 햇빛을 은폐하지 않고 영적인 주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근본 요소들을 제대로 품을 수 있도록 공간화한 집이다. 더구나 인홍세거지 후손들이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귀향해 한가로이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도 하이데거의 노후 삶과 거의 판박이라서 신비로움을 더한다.

집 한 채 한 채가 모두 강력한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인홍세거지의 한옥들을 돌아보고 인홍원 연못가에 서 있는데 화원읍의 우뚝 솟은 고층아파트가 눈에 들어온다. 불현 듯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주거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아파트형 주택을 고안해냈던 르 코르뷔지에가 했던 막말, 즉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한 기계’라는 말이 생각난다. 공간에 철학이 담기지 않고 기능만 담긴다면 사람이 사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나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인간이 집다운 집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렸을 때 고향[존재 자체의 근원] 상실이 일어나며, 그 고향상실은 우리들 삶 속에서 개인주의와 성 해방 의식 그리고 생명 죽임의 현실로 나타난다. 우리는 언제 다시 집에 관한 성찰적 사유를 하여 물질적인 ‘소유의 집’을 넘어 정신적 가치가 구현된 ‘존재의 집’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인홍세거지에 깃들어 있는 가상철학이 오늘날 노마드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화두다.

## 2·28민주운동기념 도서관 이용안내

### 1. 2·28민주운동기념회관 3층 (명덕초등학교 옆)

구분	일반 자료실	유아·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평일 (화~금)	09:00~19:00	09:00~18:00	
주말 (토~일)		09:00~17:00	

※매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관

### 2. 대출안내

- 대출시, 본인도서회원증(실물 또는 모바일 대출증)으로 대출가능
- 자관내 1인 최대 10권, 15일간 대출가능 (대구 공공도서관 총 30권)
- 관외 대출증인 도서에 한해 1인 2권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가능  
(문자 통지 후 3일 이내에 미대출시 자동으로 예약취소)



### 3. 유의사항

- 자료실 내 음식물은 반입 금지
- 정기간행물은 자료실 내 열람만 가능
- 무인 기기 대출 및 반납시 확인증 반드시 확인
- 도서 반납 후 2일 이후에 대출 가능 (연장불가)
- 타관 및 부록자료 반납은 데스크에서만 가능 (무인기기 반납불가)
- 문의 : ☎ 053-257-2280

## 2·28법률·세무상담실 무료 운영 안내

### 1. 상담분야 및 운영시간

- 법률 : 최덕수 변호사 (매주 화·금요일 14시~17시)
- 세무 : 서성욱 세무사 (매주 금요일 10시~12시)



### 2. 장소 및 문의

- 장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2·28법률·세무상담실
- 문의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 053-217-0228

발행인	곽대훈	『2·28햇불』은 홈페이지( <a href="http://www.228.or.kr">www.228.or.kr</a>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인	심충택	『2·28햇불』은 대구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편집위원	김수영, 김순재, 오경묵, 임상현, 정용균	『2·28햇불』은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제작하여 회원들과 전국의 공공기관, 학교에 증정합니다. 2·28의 학생들이 외쳤던 '민주'와 '정의'의 뜻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볼 수 있도록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a href="http://www.228.or.kr">www.228.or.kr</a>	『2·28햇불』은 비도공 서적 용지인 두성페이퍼 아도니스러프 76g으로 제작됩니다.
인스타그램	228minju(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인쇄	2025년 3월 26일	
발행	2025년 3월 31일	
인쇄처	교육사 Tel. 053-254-0088	

2·28민주운동 65주년 기념

2025 제3회

# 전국청소년 댄스·가요제

## Fly to The Dream

2025. 5. 3.(토) PM 5

대구 2·28기념중앙공원 야외무대



### | 지원자격

K-POP 스타를 꿈꾸는 전국 2001년~2014년생 누구나

### |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5년 3월 25일(화) ~ 4월 21일(월)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www.228.or.kr)에서 대회요강 확인 후  
첨기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이메일(228pro@daum.net) 접수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예)가요\_팀명, 댄스\_팀명

###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대표자, 팀원 모두 작성)
- 퍼포먼스 영상 (5분 내외, FHD 이상, 자유곡, 확장자(mp4, avi, wmv)
- 나이 증명 서류(본선 진출시)

제출처 : 이메일 접수 (228pro@daum.net)



문의 : 2·28기념사업회 기획홍보국  
053-247-2285

※ 자세한 부분은  
2·28기념사업회 홈페이지 확인

### | 심사방법

#### | 예선

2025년 4월 23일(수)  
전문 심사위원 심사

#### | 본선

2025년 5월 3일(토) 17시 (리허설 14시)  
전문 심사위원과 시민 심사단 접수 합산하여 공동심사

### | 예선결과발표

2025년 4월 24일(목)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228.or.kr)

### | 시상내역

구 분	인 수	상 금	수상내역
대 상	1팀	5,000,000 원	상장
금 상	2팀	각 1,500,000 원	또는
은 상	2팀	각 500,000 원	트로피
동 상	5팀	각 300,000 원	

주최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국 053-247-2285

후원 |



사단 |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법인 | The Society for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9 772983 006003

ISSN 2983-0060

51